

## 沙溪 金長生 학파의 禮書 연구\*

- 김장생의 『疑禮問解』· 김집의 『疑禮問解續』· 강석기의 『疑禮問解』을 중심으로 -

A Study of Ritual Study Books on Sagae Kim Jang-saeng's School  
- Centering around Uiremunhae by Kim Jang-saeng, Uiremunhaesuk by Kim Jip,  
Uiremunhae by Kang Suk-gi -

김 순 희 (Kim, Soon-Hee)\*\*

### ◁ 목 차 ▷

- |                 |                  |
|-----------------|------------------|
| 1. 서 론          | 3.2 金集의 『疑禮問解續』  |
| 2. 편찬 배경        | 3.3 姜碩期の 『疑禮問解』  |
| 2.1 金長生の 『疑禮問解』 | 4. 異同 사항 및 특징 비교 |
| 2.2 金集의 『疑禮問解續』 | 4.1 형식의 비교       |
| 2.3 姜碩期の 『疑禮問解』 | 4.2 수록내용의 비교     |
| 3. 체제 및 내용      | 5. 결 론           |
| 3.1 金長生の 『疑禮問解』 | <참고문헌>           |

### <초 록>

김장생의 『疑禮問解』와 그의 아들인 김집의 『疑禮問解續』, 김장생의 제자인 강석기의 『疑禮問解』 등 3종의 도서는 초기 예서의 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 도서의 출판문화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3종을 비교하여 고찰하는 작업을 통해 김장생을 중심으로 초기 예학자들의 예학에 대한 인식과 예의 실행에 있어서 의심나는 부분을 규명하고 예를 바르게 실천하고자 했던 의지를 널리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시기의 예서들이 출간된 과정과 의의를 살펴볼 수 있었다.

3종을 비교해 본 결과 몇 가지 사항으로 요약·정리할 수 있다. 『疑禮問解』는 김장생이 禮에 관한 문답을 기록한 것으로 김집과 몇몇 제자에 의해 편찬되어 예를 행할 때 典範으로 사용되었다. 『疑禮問解續』은 김집이 아버지인 김장생의 『疑禮問解』를 교정하고 편집한 뒤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1643년에 이 책도 편찬하였던 것을 후에 윤선거가 교감하여 1649년에 저술한 『古今喪禮異同議』를 첨부하여 1책으로 1649년에 간행하였다. 강석기의 『疑禮問解』는 姜碩期가 김장생에게 예학을 배우고, 예설에 관한 의문이 있는 것들을 김장생에서 문의하거나 의문이 해결한 후 정리하여 1638년 완성하였던 것을 1717년 증손인 봉서가 유문을 수집 정리하여 편찬을 교정하고 부록까지 정리해서 정서해 두었다가, 1772년 5대손인 명달이 강석기의 문집인 월당집에 『疑禮問解』를 별집으로 편차하여 간행하였다. 이들 3종의 예서에 대해 저술 시점은 강석기의 『疑禮問解』(1638년), 김장생의 『疑禮問解』(1643년), 김집의 『疑禮問解續』(1643)의 순서가 될 것이며, 완전한 책으로서 편집 간행된 시기는 김장생의 『疑禮問解』(1646년), 김집의 『疑禮問解續』(1694년), 강석기의 『疑禮問解』(1772년)의 순서이다.

이들 3책 모두 주제를 통례, 관례, 계례, 혼례 상례, 제례 등 5개로 나누었고 상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관례, 계례, 혼례의 경우 합쳐지거나 나누어졌다. 권수 사항으로 김장생의 『疑禮問解』는 金尙憲의 『疑禮問解序』, 『疑禮問解凡例』, 『疑禮問解目錄』이 있고, 김집의 『疑禮問解續』에는 『疑禮問解續目錄』이, 강석기의 『疑禮問解』에는 申翊聖의 後識(1638)와 『月塘先生別集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사항으로 김장생의 『疑禮問解』는 李植의 跋과 申翊聖의 識가 있고, 『疑禮問解續』은 권말사항이 없다. 姜碩期の 『疑禮問解』에는 권말에 鄭弘溟 跋이 수록되어 있다.

要語: 김장생, 김집, 강석기, 예서, 의례문해, 의례문해속, 사계, 신독재, 월당

\* 이 논문은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투고일: 2019년 2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3월 7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12일  
서지학연구, 제77집, 173-211,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7.173>)

<ABSTRACT>

*Uiryemunhae* (疑禮問解) by Kim Jang-saeng (金長生), *Uiryemunhaesok* (疑禮問解續) by Kim Jip (金集, Kim Jang-saeng's son) and *Uiryemunhae* by Kang Suk-gi (Kim Jang-saeng's student) have typical structure of early ritual-study (禮學) books. From studying these three books, it can identify Kim Jang-saeng and other early ritual scholars' thought on ritual-studies and their performance in ritual. At the same time, this study overviewed process of publication in that era.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ree books listed above, it can be summarized into few categories. By items of the beginning of a book, *Uiryemunhae* has a preface (序) written by Kim Sang-Heun, explanatory notes (凡例) and table of contents of *Uiryemunhae* while *Uiryemunhaesok* only has table of contents. Kang Suk-gi's *Uiryemunhae* contains Ji (識, writing) by Sin Ik-sung and table of contents in supplement of *Walldangjip* (月塘集, collection of Kang suk-gi's works). Beginning of the first book, Kim's *Uiryemunhae* and Supplement of *Uiryemunhae* only has illustration of customary formalities of a family (家禮圖). But Kang's *Uiryemunhae* added an illustration of customary formalities of a family in front of preface of customary formalities of a family (家禮序). End in the book, Kim's *Uiryemunhae* has a Postface (跋) by Lee Sik and Ji (Wiritng) by Sin Ik-sung but *Uiryemunhaesok* does not have any end item. Kang's *Uiryemunhae* has Jung Hong-meung's (鄭弘溟) postface as an endnote. The time of the writing of these three kinds of orders is the order of *Uiryemunhae*(Kang)(1638), *Uiryemunhae*(1643), *Uiryemunhaesok*(1643). And the period when the book was edited and published as a complete book will be the order of *Uiryemunhae* (1646), *Uiryemunhaesok* (1694), *Uiryemunhae* (Kang) (1772).

Key words: Kim Jang-saeng, Kim Jip, Kang Suk-gi, ritual-study books, *Uiryemunhae*, supplement of *Uiryemunhae*(*Uiryemunhaesok*)

## 1. 서론

고려 말에 도입된 송대 性理學은 16세기 조선 사림파에 의하여 학문적 관심이 보편화되면서 退溪 李滉·栗谷 李珥에 의하여 조선의 통치이념으로 사상적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이들은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토착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성리학 자체에 대한 이해와 전개과정에서는 상이한 체계를 보였다. 이이의 제자인 沙溪 金長生(1548~1631)의 등장으로 理氣論에 치우쳤던 조선 초기 유학의 지평을 확대한 ‘禮論’의 본격적인 전개가 시작되었다. 김장생은 조선사회가 국가적 체계를 형성해 가던 시기에 성리학적 이념에 맞는 사회 규범체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예론을 주창하였고, 이러한 그의 의도는 『疑禮問解』 등의 저술로 구체화되었다.

조선 중기에 들어서 김장생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인 愼獨齋 金集(1574~1656)과 愚伏 鄭經世, 眉叟 許穆 등의 학자들이 출현하여 예학을 본격적인 학문영역으로 발전시켰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예학의 주된 관심이었던 국가적 典禮인 ‘五禮’ 중심에서 사대부계층의 규범체계로 확대함으로써 예학을 심화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예학 관련 전문 서적들이 다수 출판됨으로써 도서 출판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하나의 현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 예서에 대한 논의를 김장생과 그의 학파로 국한해 볼 때, 김장생의 『疑禮問解』와 김집의 『疑禮問解續』, 김장생의 제자인 姜碩期(1580~1643)의 『疑禮問解』 등 3종의 도서는 예서 집필자의 편찬 의도와 함께 초기 예서의 전형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 서적에 대한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김장생과 김집의 예학사상에 주목한 연구결과가 있고<sup>1)</sup> 구체적으로 김장생의 『疑禮問解』를 고찰한 업적도 있다.<sup>2)</sup> 하지만 강석기의 『疑禮問解』<sup>3)</sup>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언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서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의 3종은 기본적으로 도서의 편찬 의도나 구성 및 체제가 유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내용에서의 가감이 각 도서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3종을 비교하여 고찰하는 작업을 통해 김장생을 중심으로 초기 예학자들의 예학에 대한 인식과 예의 실행에 있어서 의심나는

- 
- 1) 李文周, “沙溪 金長生の 禮說에 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82).  
韓基範, “沙溪 金長生과 愼獨齋 金集의 禮學思想 연구,” (博士學位論文, 忠南大學校大學院, 1990).  
鄭玉子, “17세기 전반 禮書의 성립 과정: 김장생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11(1990), 407-448.  
金善昱, “愼獨齋 金集先生의 禮敎,” 『인문학연구』 Vol.25 No.2(1998), 269-291.  
김선기, “沙溪 金長生の 學問과 禮學思想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김용걸, “沙溪先生의 삶과 禮學精神,” 『유교사상문화연구』 19(한국유교학회, 2003), 267-288.  
노인숙, “沙溪禮學과 朱子家禮,” 『유교사상문화연구』 19(한국유교학회, 2003), 313-331.  
황의동, “기호유학에서 金長生, 金集의 성리학적 위상,” 『大同哲學』 제53집(2010), 89-107.  
徐源赫, “사계 김장생의 예학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대학원, 2013).
  - 2) 김현수, “17세기 전반 栗谷學派 禮學의 爭點과 傾向 研究: 『疑禮問解』·『疑禮問解續』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제41집(2011), 155-184.
  - 3) 강석기가 편찬한 예서의 제목이 김장생이 편찬한 『疑禮問解』와 제목이 같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구별하여 『疑禮問解(姜)』으로 한다.

부분을 규명하고, 예를 바르게 실천하고자 했던 의지를 널리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3종의 예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초기 예서의 문헌적 가치를 파악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을 위의 3종으로 국한한 이유는 김장생 자신이 편찬한 예서만 해도 『典禮問答』, 『家禮輯覽』, 『喪禮備要』 등이 있어 동시에 고찰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이 3종은 도서의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대상 도서의 편찬 경위를 살펴보고, 이어 편성의 체재나 내용의 異同 사항 및 각 도서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 2. 편찬 배경

### 2.1 金長生의 『疑禮問解』

이 책은 김장생이 禮에 관한 문답을 기록한 것으로 아들 김집이 1643년 봄에 이 책을 교정하였고, 1646년 김집과 몇몇 제자들에 의해 4권으로 편집되어 간행되었다. 그 후 1685년(숙종11)에 왕의 명령에 의해 김장생의 문집인 『沙溪全書』가 간행될 때 拾遺를 추가하고 권차를 다시 나누어 8권으로 구성하여 『沙溪全書』에 포함 수록하였다.<sup>4)</sup> 『사계전서』는 스승인 이이의 문집 『栗谷全書』의 체재를 본받아 편찬하였는데, 이전의 『沙溪遺稿』에 실려 있던 『經書辨疑』, 『近思錄釋疑』, 『典禮問答』, 『家禮輯覽』, 『喪禮備要』, 『疑禮問解』 등을 모두 합해 한 질로 만들었다.<sup>5)</sup> 『疑禮問解』는 『사계전서』 권35에서부터 권41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권42에는 『疑禮問解拾遺』, 『喪祭禮答問辨疑』가 첨부되어 있다. 김장생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의례의 형식과 절차가 변화하는 變禮나 예의 모든 분야에서 의심나는 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답하고 논의하는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였다. 金尙憲(1570~1652)은 『疑禮問解序』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무릇 평소 문인이나 친구들과 주고받은 문답이 있으면 곧장 이전의 예설을 널리 상고하고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두루 모았다. 그 중에 치밀하고 자세한 것은 더욱이 황급하고 엄숙한 경우의 일인데, 품별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나누어 열람하기 편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사항마다 질정할 수 있어 여럿이 따질 필요가 없이 이 책을 한 번 열기만 하면 분명하게 해결이 되어 마치 명철한 스승과 학우들이 좌우에 있는 것 같다.<sup>6)</sup>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장생이 예학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禮說에 대해 문답하다가 의문이

4) 『沙溪全書』 卷43, 年譜, 乙丑條. “命刊行文集.”

5) 『沙溪全書』 凡例. “經書辨疑 近思錄釋疑 典禮問答 家禮輯覽 喪禮備要 疑禮問解 合裒成秩.”

6) 『淸陰集』 卷38, 序. “凡於平日門人朋友往復答問 輒博攷前代禮說 旁採諸家講說 其所致詳 尤在於急遽嚴肅之地 彙分品別 各以類從 以便繙閱 使人心有所疑 事有可質 不待聚訟 一開卷而渙然水釋 有若明師益友近在左右.”

생기면 반드시 이전의 전적을 참고하고 주변에 질의하여 확정된 견해를 마련하였다는 것과 예설 중에서도 喪禮와 葬禮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자세하게 고찰하여 정론을 확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저술은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서 실제로 예를 행할 때 典範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李植(1584~1647)과 申翊聖(1588~1644)이 쓴 발문과 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계 김선생은 牛溪와 栗谷 두 선생께 배웠는데 어려서부터 예학에 뜻이 돈독하여 연구하고 강론 하는 일을 늙어서까지 게을리 하지 않아서 친구와 문인들이 따르며 의심스러운 것을 질문하는 자가 많았다. 선생은 널리 고찰하는 중에도 근거가 있었고 답변하고 묻는 일이 끝이 없었으며, 스승이라는 생각에서 뜻을 일으키지 않았고 반드시 여러 학설에 근거하였다. 유형을 미루어 의미를 비교하여 정론을 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니 무릇 예문의 변천과 품별마다의 절도가 거의 남김이 없다.<sup>7)</sup>

생각건대 우리 선생의 학문은 복식 제도를 궁구하여 고대 시대 이후로 상고할 수 있는 文質을 두루 구하고 널리 탐색하여 고증하고 분석하는 데에 오랫동안 힘을 기울여 밝게 통하여 막힘이 없었다. 어떤 이가 질문을 하면 큰 종소리가 울리듯 바로 응답하고 증서처럼 딱 들어맞아 실로 성현이 문답한 깊은 뜻에 합치되었으니, 선생처럼 정미하고 전일하게 예를 강론한 사람은 있지 않다.<sup>8)</sup>

이처럼 김장생은 예설에 대한 내용 중 의문이 드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경서 및 전적을 상고하고, 여러 학설을 참고하여 定說을 확정하는 노력을 지속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적은 당대의 사대부들에게 크게 인정받아 실제 예를 행할 때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김장생이 생전에 직접 편집하고 간행하지는 못하였다. 김상헌의 『疑禮問解序』의 말미에 침부된 小字附註를 보면 “이 책의 분류는 후대에 한 것이다. 이 서문 중 ‘품별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나누었다.’라는 여덟 글자는 주고받으며 수정하고자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此書分類是後來所爲 書中彙分品別 各以類從八字 欲往復修潤而未及焉]”라고 하여 김장생이 기존의 정론을 정리·편집하지는 않았음을 밝혔다. 김장생의 제자인 宋時烈에 의하면 김장생은 만년에 이르기까지 이 『疑禮問解』를 항상 가까이하며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9)</sup>

『疑禮問解』를 교정하여 편성한 사람은 김장생의 아들인 김집과 그의 문인들이었다.<sup>10)</sup> 김집은 1643년(70세) 봄에 이 책을 교정하였다. 김장생이 예설에 대한 내용을 모은 것이 卷帙을 이루었으나 미처 초고로 바꾸어 놓지 못한 상태였는데 김집이 교정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4권의 책으로 만들었다.<sup>11)</sup>

7) 『澤堂集』別集 卷5, 『疑禮問解跋』. “沙溪金先生 學事牛栗兩先正 自幼篤志于禮 研究講磨 至老不懈 知舊門人從而質疑者衆 先生博稽有素 答問不窮 未嘗師心義起 必根據衆說 推類比意 要歸於定論 凡禮文之變 品節之宜 殆無遺蘊矣.”

8) 『樂全堂集』卷6, 『疑禮問解序』. “我先生學究雜服 凡自三古以降 質文之可考者 旁求博訪 證正剖析 用力積久 豁然無礙 人有扣質 應之如洪鍾 符之如左券 實契聖賢問答之微旨 則講禮之精且專 未有如先生者也.”

9) 『沙溪全書』卷45, 附錄, 語錄, 宋時烈錄. “先生晚年 只修疑禮問解 家禮輯覽.”

10) 『清陰集』卷38, 序. “疑禮問解者 沙溪金先生之所纂述 而胤子士剛氏校讎成編者也.”

11) 『澤堂集』別集 卷5, 『疑禮問解跋』. “先生既卒 長胤承旨公 承德述事 哀聚爲書 今以疑禮問解一帙 將入梓行布 其有補於禮經 甚大矣.”

김집은 편찬을 마치고 김상헌에게 서문을 부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인께서 세상에 계실 때 친구들 사이에 의문스러운 예를 두고 문답했던 것이 쌓여 권질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모두가 『儀禮』·『禮記』를 기준으로 하여 단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변례를 당하거나 의문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어 예를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指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는 이가 각각이어서 범위는 넓으나 질서가 없어 혹 한 가지 일이 여러 번 나오기도 하여 열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즘 한두 동지들과 함께 『家禮』의 체목처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기에 편리하도록 4권으로 나누어 만들었습니다.<sup>12)</sup>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疑禮問解』의 편찬 과정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즉, 김장생이 고대의 예가 바뀐 경우나, 의심나는 예에 관한 글 또는 실행에 있어서 주변의 문인 혹은 학자들과 나눈 문답의 내용을 기록하여 상당량의 원고를 모았다. 그러나 생전에 도서의 형식을 갖추지는 못한 채로 전해졌고, 김집이 몇 명의 문인들과 함께 교정하고 『朱子家禮』의 체재를 본받아 유형을 나누어 편집하여 4책으로 간행하였다. 실제 간행이 이루어진 것은 위 김상헌의 서문에 丙戌 10월이라 하였으니 1646년(인조 24) 이후이다.

## 2.2 金集의 『疑禮問解續』

서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김집은 아버지인 김장생의 『疑禮問解』를 교정하고 편집한 뒤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 김집의 연보에 의하면 『疑禮問解』를 교정 편집하던 시기인 1643년에 이 책도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그 후 윤선거가 교감하여 1649년에 저술한 『古今喪禮異同議』를 첨부하여 1책으로 만들어 1649년에 간행하였다.

그러한 간행 시기 및 배경은 윤증의 명재유고와 윤증이 쓴 『疑禮問解續跋』에서 확인할 수 있다.

『疑禮問解續』이란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선생이 사람들의 질문에 답한 것을 모은 책이다. 대체로 선생은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학문을 전수받아 부친을 이어 유학의 종주(宗主)가 되었으므로 당대의 제례(諸禮) 의혹에 대해 질정하고 분변해 주는 책임이 사계(沙溪) 노선생(老先生) 때처럼 모두 선생에게로 귀일되었다. 선생은 그때마다 매번 옛날에 들었던 것을 전술(傳述)하여 고해 주었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또 하나의 거편(巨篇)이 되었다.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우리 선친께서 그 편들을 가져다가 정리하여 『의례문해(疑禮問解)』를 이어 간행하려고 하다가 미처 간행하지 못하였다. 이제 다시 교정하되 한결같이 『疑禮問解』의 방식에 따르고 이미 『疑禮問解』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복을 피해 삭제하는 식으로 정리하였는데, 총 150여 조목이다.<sup>14)</sup>

11) 『愼獨齋全書』卷15, 附錄, 年譜上, 70歲條. “春 校正疑禮問解 老先生嘗與學者 編錄知舊問疑禮問答 哀成卷帙而未及易藁 至是先生始校正 彙分類聚爲四冊.”

12) 『愼獨齋全書』卷15, 附錄, 年譜上, 72歲條. “先人在世時 知舊問以疑禮問答者 積成卷帙 悉以儀禮禮記爲斷 庶幾有所考据 臨變禮處疑事 而可謂學禮者指南 第各人所問汗漫無序 或一事而累出 未易考閱 某近與一二同志 依家禮題目 彙分類聚 以便觀覽 分作四卷.”

13) 『愼獨齋全書』卷15, 附錄, 年譜上, 70歲條. “先生又有與門人問答之禮書 後來蒐集如疑禮問解之例 名曰疑禮問解續.”

『疑禮問解』라는 책은 아버지가 짓고 아들이 전술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疑禮問解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이에 감히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상의하여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의 사례에 따라 이 책의 이름을 『疑禮問解續』으로 명명한 뒤에 『疑禮問解』와 합하여 한 질로 만들고는 삼가 그 경위를 권말에 기록하였으니, 후세의 학자들이 이에 대해 상고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신독재 선생의 『續疑禮問解』를 勘訂하고, 인하여 발문을 지었다. 노선생(윤선거를 말함)이 일찍이 신독재 선생의 『疑禮問答』을 편찬하여 『속의례문해』를 간행하려다가 미처 하지 못했다. 이때에 이르러 선생이 다시 교감하고 정리한 뒤 기축년(1649, 효종1)의 『古今喪禮異同議』를 첨부하여 1책으로 만들어 인쇄하였다.<sup>16)</sup>

위의 글들은 尹拯(1629~1714)의 말로 윤증의 아버지인 尹宣舉(1610~1669)는 『疑禮問解』의 교정에 직접 참여했던 김장생의 제자이다.<sup>17)</sup> 『疑禮經傳通解續』은 朱熹가 『儀禮經典通解』를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제자인 黃榦과 楊復이 상례와 제례 부분을 보완하여 편찬한 책이다. 이를 보면 김집의 편찬 의도가 아버지의 『疑禮問解』를 보완하기 위함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현재 충남대 소장본을 보면 『疑禮問解』 권4의 다음에 이 책이 『疑禮問解續』이라는 제목으로 첨부되어 있고, 권1의 뒷 부분에 古今喪禮異同議가 합본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하여 총 5권이므로, 위 윤증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충남대 소장본과 동일판인 국립중앙본 소장의 『疑禮問解』<sup>18)</sup>(성호古5213-95-5)는 속을 포함한 것으로 윤증의 續跋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慎獨齋全書』 권13과 권14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慎獨齋全書』는 서발 및 간기가 없어 그 정확한 간행 과정을 알 수 없다.

김집은 家學으로서 예학의 정수를 물려받은 학자이다. 김장생이 예설에 관해 주고받은 문답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직접 보았을 것이 분명하고, 김장생 사후인 1631년부터 자신도 이런 작업을 계승하여 독자적인 편찬서를 만들게 되었다. 이것은 예학이 가학과 사승의 관계를 통해 전승되었음을 보여주며, 예서 편찬의 발전적 전개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2.3 姜碩期の 『疑禮問解』

이 책은 현재 『月塘集』에 수록되어 있다.<sup>19)</sup> 姜碩期(1580~1643)는 김장생의 제자로서 예학을 배웠고, 의문 나는 점은 기록해 두었다가 스승에게 나아가 바로잡아 지극한 결론에 이른 뒤에 사례의 변례에 대해 의심나는 것을 조목별로 정리하고 스승인 김장생의 刪定을 거쳐 이 책을 완성하였다.

14) 『明齋遺稿』 卷32, 『疑禮問解續跋』 甲戌. “疑禮問解續者 慎獨齋金先生之所答問也 蓋先生以傳家之學 繼爲儒宗當世之質疑辨惑者……總一百五十有餘條.”

15) 『明齋遺稿』 卷32, 『疑禮問解續跋』 甲戌. “則問解一書 作述相承 而此編所載 特其緒餘耳 茲敢與同志商議 依通解續之例 以名此編 與問解合爲一帙 而謹識其委折於卷末 後之學者 尙有攷焉.”

16) 『明齋遺稿』, 年譜 卷2. 六十七年 甲戌. “勘訂慎獨齋先生續疑禮問解回述跋文. 老先生……以成一書入梓焉.”

17) 『魯西遺稿』, 附錄, 年譜, 乙未 條. “會宋李諸公于遼巖 校疑禮問解.”

18) 국립중앙본(성호古5213-95-5) 續跋: 崇禎紀元戊辰之後 六十七年 甲戌(1694) … 尹拯.

19) 『月塘先生集』 別集, 卷1, 卷2에 수록되어 있다.

신익성의 서문을 살펴보면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월당 어른이 『疑禮問解』를 나에게 보여주면서 서문을 지어달라고 하였다. 내가 여기에는 중사하지 못했으나 또한 배우고 싶은 뜻이 있었으므로 드디어 회상(淮上)으로 가지고 가서 여러 달을 읽어 본 뒤에야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 무인년(1638) 6월 하순에 평산 신익성은 삼가 기록한다.<sup>20)</sup>

신익성은 척화파로서 청나라와 화의가 이루어지자 지금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지역에 선영을 조성하고 이곳을 ‘東淮’라고 이름 짓고 은거하였다.<sup>21)</sup> 위의 인용에 나오는 淮上이 바로 이곳이다. 신익성이 이 서문을 쓴 것이 1638년이니 강석기가 이미 이전에 이 책을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석기와 동문수학한 鄭弘溟(1582~1650)가 쓴 발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내 친구 월당 강공 복이는 일찍이 사계 선생을 따라 예학을 배웠는데 부지런하다고 할 만하였다. 평소에 여러 해 동안 연구하고 실마리를 찾아 이미 오묘한 세계에 들어갔으며 그 맛을 보았다. 그 사이에 사실이 다른 견해가 있어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없거나 평상시에 예를 행할 때, 간혹 古禮에는 마땅하지만 현재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나 예서에는 없으나 의리상 새로운 예를 만들 만한 것이 있으면 모두 의심하여 기록해 두었다가 스승에게 나아가 바로잡아 지극한 결론에 이른 뒤에야 그쳤다.<sup>22)</sup>

이처럼 강석기는 김장생에게 예학을 배우고 예설에 관한 것 중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기록해 두었다가 김장생에서 문의하거나 하여 의심이 해결된 뒤에 다시 그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책명을 『疑禮問解』라 했을 것이다. 실제로 『疑禮問解(姜)』에 수록된 143항목 중 75 항목이 김장생의 『疑禮問解』에 수록되어 있다. 정홍명이 이 발문을 쓴 것도 1638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익성의 서문과 합하여 고찰해 볼 때, 1638년 이전에 강석기는 이 책의 편찬을 마감하고 주변의 인물들에게 서문과 발문을 부탁하여 간행의 준비를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강석기 집안은 그의 딸이었던 姜嬪의 옥사로 멸문이 되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유고를 정리해 문집을 간행할 여력이 없었다. 그의 謚狀이나 神道碑에도 ‘단지 저술로는 『疑禮問解』 일부가 가장되어 있다’라고 할뿐 문집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유고의 정리는 1718년(숙종 44) 강석기가 신원·복작되던 즈음에야 행해진 듯하다. 그의 5대손 강명달이 쓴 識에 의하면 “1717년 증손인 봉서가 강석기의 신원을 청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문집간행을 하기 위해 수년 간 유문을 수집 정리하여 편차를 교정하고 부록까지 정리해서 정서해 두었으나 재력이 모자라 미처 간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 1772년 5대손인 명달이 음성 현감이 되자 봉서의 교정본에다 『疑禮問解』를 별집으로 편차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20) 『樂全堂集』 卷6, 序, 『疑禮問解序』. “月塘翁以疑禮問解示余 仍屬序述 余未嘗從事於斯 而亦嘗有意於叩質 遂携歸淮上 屢閱月而始卒業焉 … 歲舍戊寅季夏下申翊聖謹識.”

21) 『東江遺集』 卷9, 七言絕句, <伯氏自瀋還重尋淮上舊業有作示余余適東裝往會謹步其韻記實>

22) 『崎庵集』 卷10. 書跋, 『疑禮問解跋』. “吾友月塘姜公復而 早從沙溪先生 受書學禮 可謂勤矣 居閑有年 研思細繹 蓋已闡其奧而嗜其藏矣 其間見有疏密不同 取舍靡定 日用常行之際 或不無宜於古而在今難施 亡於禮而可以義起者 悉皆疑而錄之 就而正焉 期於歸一極趣而後已.”

“『疑禮問解』는 1646년 김집이 편차하여 간행한 김장생의 『疑禮問解』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빠진 내용이 많고 또 저자의 평생의 공부가 담긴 예학이었던 만큼 별집으로 간행한다”<sup>23)</sup>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그동안 『疑禮問解(姜)』은 강석기가 김장생의 제자이므로 당연히 『疑禮問解』 편찬 이후에 저술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강석기가 가장 먼저 『疑禮問解』를 저술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 3종의 예서에 대해 저술시점은 『疑禮問解(姜)』(1638년), 『疑禮問解』(1643년), 『疑禮問解續』(1643년)의 순서가 될 것이며, 완전한 책으로서 편집 간행된 시기는 『疑禮問解』(1646년), 『疑禮問解續』(1694년), 『疑禮問解(姜)』(1772년)의 순서가 될 것이다.

### 3. 체재 및 내용

이들 3종의 책은 모두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체재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제별로 가례도, 통례, 관(계)례, 혼례, 상례, 제례 등으로 대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질문의 유형에 따라 다시 중분류하였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질문들의 수록하였다. 또한 질문의 요지를 두주형식의 제목으로 하여 배열의 체계화함은 물론 열람 및 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밖에 각 책의 체재와 내용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3.1 金長生의 『疑禮問解』

##### 3.1.1 체재 및 구성

疑禮問解 / 金長生 撰 ; 金集 編. -- 木板本. -- [刊寫地未詳] : 金翊聖, 仁祖 24(1646)  
4卷4冊 : 四周雙邊 半郭: 21.5 x 14.8 cm, 有界, 10行19字 頭註 註雙行,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28.3 x 17.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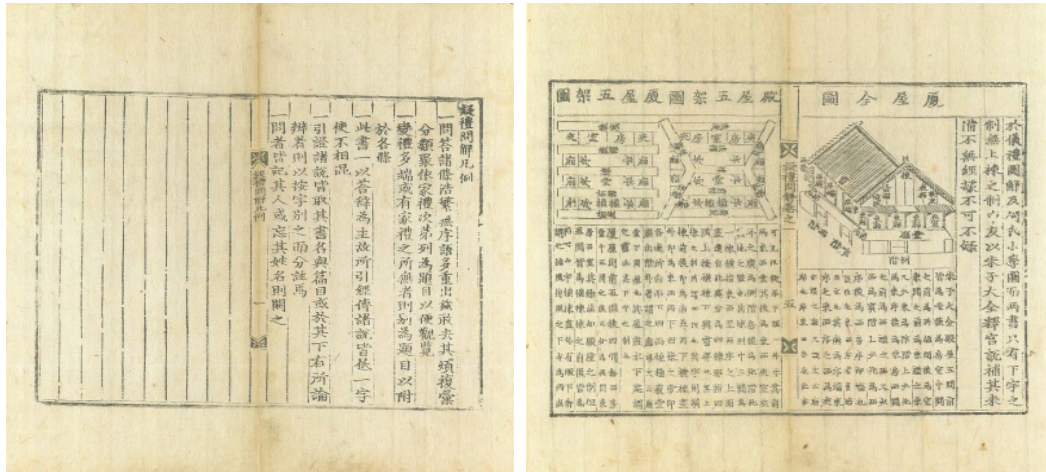
序: 已疑禮問解者歲沙溪金先生所纂述…… 丙戌(1646)十月日安東金尙憲序.

跋: 癸未(1643)仲春旣望德水後學.李植拜書,

繫縻未抄夏上浣平山後人申翊聖 謹識

이 책은 4권 4책이며 첫머리에 김상헌의 序와 凡例, 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권1에는 家禮圖를 포함하여 通禮, 冠禮, 婚禮, 喪禮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는데, 범례와 통례의 사당조 등에서 삽도가 유일하게 있다.

23) 『月塘先生集』 卷8, 識. “右我五代祖 … 崇禎後三任辰仲春五代孫縣監命達謹識.”



범례

삼도

<그림 1> 김장생의 『疑禮問解』에 수록된 범례와 삼도

권2에서부터 권4까지는 주로 喪禮에 대한 내용이다. 祭禮는 권4의 말미에 약간 실려 있다. 이로부터 상례에 대한 내용이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남대본 『疑禮問解』와 『沙溪全書』에 실려 있는 것의 권수와 수록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는 전자의 경우 1646년 단행본으로 간행하였고, 후자는 1685년에 全書를 간행할 때 추가로 습득된 문답까지 포함하여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권별의 자세한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장의 <표 1>에 실려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본편은 총 494항목의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차례 및 주제와 수록된 질문의 항목수를 보면, 가례도 8항, 통례 58항, 관례 5항, 계례 1항, 혼례 12항, 상례 363건, 제례 47건 등이다. 그리고 습유는 통례 11항, 상례 24항, 제례 13항으로 총 58항이므로 김장생의 『疑禮問解』는 총 552항의 문답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질문자는 모두 13명인데, 黃宗海(59) · 吳允諧(5) · 申湜(20) · 宋浚吉(211) · 趙希逸(1) · 姜碩期(76) · 李惟泰(36) · 宋時烈(22) · 洪雱(2) · 鄭弘溟(3) · 李敬輿(1) · 李以恂(2) · 李尙馨(14)<sup>24)</sup> 등이다. 이 중 이상형은 『疑禮問解拾遺』에만 나온다. 이들 중 질문의 횟수가 가장 많은 제자가 송준길이다. 송준길은 그의 장인이 한국 예학에서 김장생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鄭經世(1563~1633)로, 그가 이항의 학통을 이은 영남 유학의 상징적인 학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송준길의 질의를 통하여 기호 예학과 영남 예학의 절충이 가능해졌다는 의의가 있다.<sup>25)</sup> 여기에 김장생과 교류하며 질문에 참여했던 황중해가 영남 유학을 대표하는 학자인 鄭述(1543~1620)의 제자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4) 괄호 안의 숫자는 질문 횟수로, 『의례문해습유』의 수도 포함한 것이다.

25) 裒相賢, 『沙溪全書』 解題.

### 3.1.2 凡例와 目錄

범례<sup>26)</sup>는 5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편찬 의도와 체재의 주요 사항이 다 망라되어 있다. 범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번거롭게 중복된 것을 버리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朱子家禮』의 차례에 의거하여 제목을 나열하여 보기에 편리하게 하였다.[去其煩複 彙分類聚 依家禮次第 列爲題目 以便觀覽]
- 변례는 매우 많아 『주자가례』에 없는 것이 있으면 별도로 제목을 정해 각 조목에 붙여 놓았다.[變禮多端 或有家禮之所無者 則別爲題目 以附於各條]
- 이 책은 한결같이 답사를 위주로 하였으므로 인용한 경전의 여러 학설은 모두 한 글자 내려 써서 혼동하지 않게 하였다.[此書一以答辭爲主 故所引經傳諸說 皆低一字 使不相混]
- 인용한 여러 학설은 모두 서명과 편목을 취하였으며 혹시 아래에 논변한 것이 있으면 ‘按’자를 별도로 써서 주를 나누었다.[引證諸說 皆取其書名與篇目 或於其下有所論辨者 則以按字別之而分註焉]
- 질문한 자는 모두 그 사람을 기록하였으며 성명을 잊었을 때는 비워두었다.[問者皆記其人 或忘其姓名 則闕之]

범례에 이 책의 체재가 잘 설명되어 있다. 『疑禮問解』는 기본적으로 『주자가례』의 체재를 따르고 있는데, 이는 朱熹와 『주자가례』의 상징성과 권위를 인식한 결과로 이해된다. 주목되는 사실은 『주자가례』가 당시 조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變禮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대한 수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시대의 상황을 고려한 예학의 발전적 실현이며, 김장생을 한국 예학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매우 많아 여기서 전부 논의할 수는 없으므로 冠禮의 경우를 비교해 보았다. 『주자가례』<sup>27)</sup>에 의하면 남성의 성인식인 관례와 여성의 성인식인 笄禮에 대해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만을 간략하게 기록하였고, 이에 대해 여러 해설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관례의 경우 『疑禮問解』에서는 총 4條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士冠禮에 대한 것, 三加之 冠服에 대한 것, 관례를 올린 자에게 字를 지어 주는 일에 관한 것, 醮와 醴의 다른 점에 대한 것 등이다. 앞의 3개의 질문자는 李惟泰이고 4번째는 질문자 미상이다. 2번째의 예를 살펴본다.

- [문] 관례의 삼가에 이미 순수히 古禮만을 쓸 수 없다면 관복은 무엇을 써야 합니까? -이우태  
 [답] 幅巾이 없을 경우 程冠을 초가의 관으로 쓰고, 笠子를 재가의 관으로 쓰고, 儒巾을 삼가의 관으로 쓰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다.<sup>28)</sup>

三加는 관례에서 관을 세 번 바꾸어 쓰는 절차로 중국 송대와 조선의 복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장생은 程冠과 笠子, 儒巾을 쓰는 것이 어떠하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다. 정관은 송대의 유학자 程頤가 썼다는 관이고, 입자는 샅갓이며

26) 이 범례는 『사계전서』에는 없고 충남대본에는 수록되어 있다.

27) 『朱子全書』, 上海古籍出版社, 2002, 第7冊, 家禮 권2.

28) 『국역사계김장생전서』 권36, 관례.

유건은 선비들이 일상적으로 쓰던 관이다. 계례의 경우는 許嫁에 대한 조목 하나만이 있을 뿐이다. 위의 문답으로 볼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관례의 구체적인 과정이 확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김장생이 당시 조선의 실제 형편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의 전범을 세우고자 노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목록의 기입방식을 살펴보면, 상란에 붙여 ○표시하고 권차를 기입한 후, 줄 바꾸어서 한자 내려 ○표시하고 대분류 항목 명을 써주고, 중분류에 해당하는 주제어와 附註는 한자 내리거나 전의 항목명과 간격을 많이 두고 ○표시하고 기입하였다. 그리고 중분류에 속한 질문의 제목들은 아무런 표시하지 않고 한줄 또는 이단으로 나열하여 배열의 체계화를 시켰다. 다만 권3의 心喪부터 끝까지는 중분류에 해당하나 편집 및 판각 시 착오였는지 ○표시가 누락 되어 있고 목록상에 권지 3의 窠에 속한 先後葬 항목이 누락되었다.

### 3.1.3 附註

附註는 주희의 문인인 楊復이 편찬한 『家禮雜說附註』를 참고할 때, 『疑禮問解』의 부주도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황종해가 『주자가례』의 부주를 누가 編入하였느냐고 묻자 김장생이 朱復의 말을 인용하여 양복이 이 일을 담당했음을 말했으며,<sup>29)</sup> 김장생 또한 이 방식을 따라 『疑禮問解』를 편찬하면서 부주를 활용하였다. 모든 조목에 부주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만 부주를 달았다. 부주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 난삼에 대하여 묻습니다.

[답] 지난해 선군(先君)을 따라 북경(北京)에 갔다가 국자감(國子監)의 유생(儒生)이 유복(儒服)을 입고 있는 것을 본바, 남색 견(絹)으로 상의를 만들고 너비 네다섯 치의 청혹색 견으로 옷깃 및 소매끝과 자락끝을 장식하고 깃은 둥글었는데, 이를 난삼이라고 하였다.

『사물기원(事物記原)』 당지(唐志)에 이르기를 “마주(馬周)가 삼대(三代)의 삼배 심의(深衣)에다 난(襪)과 거(裾)를 달아서 난삼이라고 이름하여 상사(上士)들이 입는 옷을 삼았는데, 지금 거자(舉子)들이 입는 옷이다.” 하였다. ○ 『천중기(天中記)』에 이르기를 “당(唐)나라 태위(太尉) 장손무기(長孫無忌)가 의론하기를 ‘포(袍)를 입을 경우 아랫단에 난(襪)을 대되 분홍색·자주색·녹색은 모두 품계에 맞도록 하고, 서인(庶人)은 흰색으로 대도록 하소서.’ 하였다.” 하였다. ○ 명도(明道)가 말하기를 “소요부(邵堯夫 소옹(邵雍))가 처음에 이정지(李挺之)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사도(師道)가 하도 엄하여 비록 어느 야점(野店)에서라도 밥을 먹을 적에는 반드시 난삼을 입고, 앉을 적에는 반드시 절을 하였다.” 하였다. ○ 주자의 『군신복의(君臣服議)』에 이르기를 “직령(直領)을 하는 것은 고례(古禮)인데, 위에 의(衣)가 있고 아래에 상(裳)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상령(上領)에 난(襪)이 있는 것은 금례(今禮)인데, 오늘날의 공복(公服)에서 상의(上衣)와 하난(下襪)이 서로 연결되어 옷깃과 떨어지지 않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하였다. ○ 『대명집례(大明集禮)』에 이르기를 “송나라의 공복은 곡령(曲領)과 대수(大袖)에다 아래에 횡란(橫襪)을 달았는데, 홍무(洪武) 24년에 생원(生員)의 건복(巾服)을 제정하면서 옥색 견포(絹布)로 소매가 넓은 난삼(襪衫)을 만들어 입었다.” 하였다.<sup>30)</sup>

29) 『국역사계김장생전서』 권35, 부주.

30) 『국역사계김장생전서』 권35, 참례.

난삼은 上衣와 下裳이 서로 연결된 옷으로, 衫의 아랫부분에 가로로 襠을 잇대어 裳의 모양을 만든 옷이다. 北周 때부터 입기 시작하였으며, 선비들이 주로 입었다. 누군가가 난삼에 대해 묻자 김장생은 자신이 중국에서 직접 본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하였고, 이에 덧붙여 부주를 달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事物紀原』, 『天中記』, 『大明集禮』 등 3권의 저술과 『君臣服議』라는 논설을 인용하였으며, 송대의 유학자인 程顥의 말까지 첨가하였다. 여기에서 김장생의 예학을 이루는 저변의 넓이와 깊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이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폭 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한국 예학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었다.

### 3.1.4 기술방식

이 책은 질문과 답변 및 부주의 배열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 질문은 상란에서 두 글자 내려 쓰고, 답변은 상란에 붙여 썼으며, 부주는 상란에서 한 글자 내려 썼다. 질문의 경우 질문자를 기록할 필요가 있으면 말미에 小字로 첨기하였다. 답변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말미에 小字註를 첨기하였다.

특이한 점은 작 항목의 시작 부분인 문의 상란 위에 내용을 요약하여 頭註형태의 제목을 달았다는 것이다. 이 두주형태의 제목은 권수의 목차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내용에서 예를 들면 관례의 경우, 삼가의 관복에 대해 문답한 항목에는 ‘三加冠服’이라고 했으며, 관례에서 대상자에게 字를 지어주는 일에 대한 항목에서는 ‘字冠者’라 하여 열람의 편리를 도왔다. 이는 편찬자의 주도면밀함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그 밖에 강석기의 『疑禮問解』와 내용을 대교해보니 권지 3의 상례 附變除의 除服月數終始死日計, 권지 4 상례 大祥의 未大祥間假以出謁者가 모두 이유태로 기록되어있으나 강석기의 『疑禮問解』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질문자가 이유태가 아닌 강석기로 추정된다.

## 3.2 金集의 『疑禮問解續』

### 3.2.1 체재 및 구성

疑禮問解續 / 金集 編. -- 木版本. -- [刊寫地未詳], 仁祖 24(1646)

1권1책 : 四周雙邊 半郭: 21.5 x 14.8 cm, 有界, 10行19字 頭註 註雙行,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28.3 x 17.5 cm

續序: 崇禎紀元戊辰之後 六十七年 甲戌(1694)尹拯

이 책은 기본적으로 『疑禮問解』와 같은 의도로 편찬되었으며, 동시에 목판으로 간행하였으므로

체재나 구성, 기술방식에 차이가 없다. 충남대 소장본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중 성호古5213-95은 독립된 권으로 『疑禮問解』와 같이 권질을 형성하여 마지막에 『疑禮問解』의 권차 표시와는 달리續으로 편입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이 『慎獨齋全書』 권13과 권 14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신독재전서』에서 『疑禮問解續』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산삭이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충남대본에는 목록이 있으나 『신독재전서』에는 생략되었고, 책의 말미에 실려 있는 ‘家禮諺解’가 빠져 있다. 이것은 송준길이 『家禮諺解』 주에 잘못된 것이 많다고 지적하며 질문한 것에 대해 김집이 답변한 것인데 누락되었다. 그리고 충남대본에는 윤증의 발문이 없으나 국중본에는 윤증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疑禮問解續』에는 附註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김집의 예설이 소홀하다는 뜻이 아니라, 김장생과 김집의 서술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일 뿐이다. 『疑禮問解』에서는 답변을 간략히 하고 아래에 부주를 첨기하여 설명한 반면에, 『疑禮問解續』에서는 부주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답변에 포함하여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疑禮問解』에 기록된 질문수는 160항으로 윤증의 발문에서 밝힌 15여항과 차이가 없다. 또한 질문자는 13명이었으나 이 책에 기록된 질문자는 金之白(5) ·李文載(4) ·崔碩儒(51) ·鄭基磅(15) ·崔愼(19) ·金榮後(3) ·宋浚吉(17) ·安重(1) ·安弘重(5) ·吳達夫(1) ·申炅(4) ·李悅(2) ·宋時烈(6) ·尹宜舉(15) ·尹柔(3) ·池寧海 池德海(1) ·李敬與(1) ·李明漢(1) ·尹舜舉(1) ·韓聖臣(1) ·李憬(1) ·李弘淵(1) ·閔後騫(2) 등 24명에 이른다. 『疑禮問解續』에는 질문자가 누락된 예가 거의 없다. 이는 『疑禮問解』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며, 한편으로 김집의 치밀한 편찬 준비를 엿볼 수 있다. 질문자 중에 『疑禮問解』와 『疑禮問解續』의 정리 과정에 참여했던 윤선 거의 등장이 주목된다.

### 3.2.2 내용의 특징

이 책은 『疑禮問解』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되었으므로 『疑禮問解』에서 논의한 내용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당에 불이 났을 경우 옷을 바꾸어 입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김집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문] 집에 불이 나 사당도 모두 불타 버렸습니다. 예문에 역복(易服)하는 절차가 있지만, 상복 중이어서 감히 옷을 바꿔 입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주를 다시 쓸 때 별도로 갈아입고 예를 행하는 복장이 있습니까? - 진사(進士) 김영후(金榮後) -

[답] 예문에, “종묘(宗廟)가 불탔으면 옷을 바꿔 입고 3일을 곡한다.”고 하였으니 당연히 그대로 해야 할 것이나, 지금 상복 중이므로 효건(孝巾)과 출입할 때 입는 베로 된 심의(深衣)를 착용하고 예를 행하고, 신주를 쓸 때도 그 복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sup>31)</sup>

31) 『국역신독재전서』, 권13, 『疑禮問解續』, 상례.

사당에 불이 났을 대의 처신에 대해 『疑禮問解』에서 자세히 언급하였기 때문에 김집은 위의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함으로써 중복을 피하고 논의를 확장하였다.

김장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전거를 모두 들어 상대방의 물음에 답변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김집은 전거를 인용하면서도 답변이 간결하고, 확정적인 표현보다는 권유형의 문체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질문보다 답변이 더 짧은 향도 많이 있다.

[문] 부장기(不杖碁)는 적부(嫡婦)와 적손(嫡孫)을 위한 복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삼대(三代)를 이은 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또 남에게 시집간 여인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 형제를 위해서 아버지의 후계자라는 그 의의를 중히 여겨 복을 내려 입지 않는 것입니까? - 최석유 -  
[답] 바로 물어오신 말씀 그대로입니다.<sup>32)</sup>

이 항은 적부와 적손, 그리고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 형제간을 위하여 입는 상복에 대한 질문인데, 최석유의 질문에 이미 답변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짧게 응답한 장면이다. 이어 출가한 고모가 미성년으로 죽은 조카를 위하여 입는 복에 대한 예를 보겠다.

[문] 출가한 고모가 미성년으로 죽은 조카를 위하여는 7개월 복이라야 맞을 것 같은데, 의례도(儀禮圖)와 연혁도(沿革圖)에는 모두 소공(小功)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 송준길 -  
[답] 기년복 대상자가 미성년으로 죽으면 진실로 7개월로 하는 예제(禮制)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출가한 고모가 미성년으로 죽은 조카를 위해서는 7개월 복이 옳을 것 같은데, 두 그림에는 모두 소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건대 대공(大功)이 기년(墓年)에 비하면 조금 가벼운 복이기 때문에, 7개월 복에 대한 부분을 생략해 버리고 그것을 소공에다 합친 것인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sup>33)</sup>

송준길이 이러한 상황에서 7개월 상복을 입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김집은 결론적으로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한다. 禮制를 근거로 한 송준길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儀禮圖와 沿革圖에 5개월 복인 小功을 입으라고 했으니 김집으로서도 뭐라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간략하게 피력하고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문] 맏아들을 위해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네 종류 있는데, 지금 저의 아들이 3세 때 풍을 맞아 폐질(廢疾)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사당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삼년복을 입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어떻습니까? - 정랑(正郎) 민후건(閔後騫) -  
[답] 네 종류의 설은 《의례》의 소(疏)에 있는 말이나, 형의 집같이 맏아들이 비록 폐질에 걸려 그를 대신할 다른 적자가 없는 경우에도 《의례》의 소의 말대로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예를 아는 이들에게 널리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儀禮』에 의하면 자녀와 손자의 상을 당했을 때 8세 이하는 ‘無服之喪’이라 하여 상복을 입지

32) 『국역신독재전서』, 권13, 『疑禮問解續』, 상례.  
33) 『국역신독재전서』, 권13, 『疑禮問解續』, 상례.

않는다.<sup>34)</sup> 민후건이 불치병으로 아들을 잃고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자 김집은 제대로 알지 못한 다며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권유한다. 당시에 김집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학자가 없었겠지만, 확실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김집의 방식이었다.

이처럼 김집이 『疑禮問解續』을 편찬하면서 김장생의 유지를 받들어 예설을 확대하고 시의적절한 예설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질문자가 이미 예의 본질을 알고 질문할 때는 그대로 시행하라고 답변하였으며,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은 판단을 유보하였고, 다른 학자에게 질문을 권하였다. 이러한 김집의 방식은 초기 예학의 수준을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3 姜碩期의 『疑禮問解』

#### 3.3.1 체제 및 구성

月塘先生集 別集 上, 下 / 姜碩期 著; 姜鳳瑞 校; 姜命達 編. -- 활자본. -- 陰城: 姜命達, 高宗37(1772)

2卷2册: 四周雙邊 半郭 21.1 x 13.8 cm, 10行20字 頭註 註雙行, 上下向百魚尾; 29.2 x 18.0 cm

識: 月當翁以疑禮問解……戊寅(1638)季夏澣平山申翊聖謹識

跋: 古人不曰禮其洋洋未德……鄭弘溟跋 [1638]

『疑禮問解(姜)』에는 143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75 항목이 김장생의 『疑禮問解』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1638년 이전에 강석기가 편찬하였던 것을 1772년 5대손 명달이 『月塘集』<sup>35)</sup>을 활자본으로 간행 시 『疑禮問解』를 별집으로 편찬한 것이다. 권두에 申翊聖의 서문과 목록이 있고, 上下 권으로 나누어 내용이 수록되었으며 말미에 정홍명의 발문이 있다.

『疑禮問解(姜)』은 기본적으로 김장생의 『疑禮問解』의 체제와 같으나 기술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상란의 위에 頭註가 배치되어 있고, 항목별 제목은 상란에서 두 글자 내려 썼다. 질문은 ‘問’자 만을 상단에 붙여 썼고 나머지는 상란에서 한 글자 내려 썼으며, 답변은 모두 상란에서 한 글자 내려 썼으며 필요한 경우 조항의 말미에 소자쌍행으로 주해를 첨기하였다. 附註는 첫글자를 소자로 ‘附’라고 써서 부주임을 명시하였고, 상란에서 두 글자 내려 썼다. 권수에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家禮序朱子序文兩病之義』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通禮·冠禮·婚禮·喪禮·祭禮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의 말미에 ‘喪禮’ 조항이

34) 『儀禮』, 卷11, 喪服 第11.

35) 『月塘先生集』 卷8, 識. “右我五代祖 … 崇禎後三任辰(1772)仲春五代孫縣監命達謹識.”

보충되어 있고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주가 첨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조목을 배열한 까닭을 설명하였다.

여기에 기록한 문답은 중복된 것으로 사계선생의 刪定을 거쳤으므로 초본과는 자세하고 생략됨이 같지 않다.<sup>36)</sup>

이전에 의심스러운 예에 대해 여쭙어 본 여러 조목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여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대비하였다. 그리고 답변하신 말씀 중 다 갖추지 못한 것이 있으면 감히 문답한 말씀을 먼저 배열하면서 한 글자 내려 썼고, 요즘 질문한 것은 또 한 글자 내려 써서 다시 가르침을 받기를 바란다.<sup>37)</sup>

위의 인용으로 보아 강석기가 이 책의 편찬에 매우 정성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스승인 김장생과의 문답을 통해 의심을 해결한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고, 설명이 미진한 것과 최근에 생긴 의심을 다시 기록하는 작업을 그치지 않았다는 점은 예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 열의가 대단했음을 입증한다.

이 책이 다른 두 책과 다른 점은 질문자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姜碩期가 의문나는 점은 기록해 두었다가 스승에게 나아가 바로잡아 지극한 결론에 이른 뒤에 사례의 변례에 대해 의심나는 것을 조목별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록내용은 총 126항목이다. 『月塘集』의 강명달의 識에서도 1646년 김집이 편차하여 간행한 김장생의 『疑禮問解』에 빠진 내용이 많아 별집으로 간행한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126항목 중 김장생의 『疑禮問解』에는 75개의 질문만이 수록되어 있다.

### 3.3.2 내용의 특징

강석기는 『疑禮問解』를 본받아 이 책을 저술하였으나, 나름대로 독자적인 연구와 관련 전거를 검토하여 자신의 주장을 확정하였다. 그는 자신의 안목에 의해 『疑禮問解』에서 깊이 다루지 못한 것이나, 질문자가 새로운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였다. 이 책의 첫머리에 『주자가례』 서문의 내용 중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다.

[문] 『주자가례』의 서문에 ‘나의 어리석음은 대개 두 가지의 병폐가 있다.’<sup>38)</sup>라고 했는데 소위 두 가지 병폐라는 뜻이 자세하지 않다.

[답] 이 두 가지 병폐라는 것에 대한 견해가 각각 다르다. 퇴계는 ‘스스로 근본을 버리고 문체에만 급한데 이른 것이 하나의 병폐이고, 각자가 뜻이 있어 예에 이르는 것이 하나의 병폐이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삼대에서부터 한 시대의 법에 이른 것이 하나의 병폐이고, 자연스럽거나 간혹 상세한 것이 예에 미친 것이 하나의 병폐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스스로 뜻이 있어 요점에

36) 『月塘集』別集, 『疑禮問解 下』, 喪禮 條. “此錄問答重出者 經沙溪先生刪節 故與初本詳略不同.”

37) 『月塘集』別集, 『疑禮問解 下』, 喪禮 條. “前日仰稟疑禮諸條 錄爲一冊 以備考閱 而下答之辭 未有悉處 敢先陳前所問答之辭而低一字書 今日之間 又低一字 幸更察指教.”

38) 『朱子全書』, 上海古籍出版社, 2002, 第7冊, 『家禮序』. “熹之愚皆兩病焉.”

이른 것이 하나의 병폐이고, 가난함에 곤란을 겪으며 예에 미친 것이 하나의 병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옳고 그른지 모르겠다.<sup>39)</sup>

강석기의 생각에는 『주자가례서』에서 제기한 문제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고는 주희의 예론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병폐[兩病]’에 대해서는 조선의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이었다. 정경세와 송시열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sup>40)</sup> 강석기의 견해는 ‘사람들마다 각자 예를 해석하여 요체를 이해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가난하여 예를 제대로 행할 수 없는데 예를 행해야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강석기가 예설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학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강석기는 최선의 답변을 위해 자신의 경험과 다른 학자들의 선례를 인용하였다. 특히 李滉의 학설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신주에 직함을 쓰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자신의 집안에서 쓰는 예와 이황의 말을 인용하여 답변하였다. 이황의 예를 인용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 이황에게 질문했던 盧守愼의 말을 그대로 재인용하여 신빙성을 높였다. 이런 경우에는 상란에서 두 글자 내려 써서 구분하였다.

[문] 신주에 증직을 쓸 때 세간에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누구는 증직을 먼저 쓰고 뒤에 실직을 쓰며, 누구는 먼저 실직을 쓰고 뒤에 증직을 쓰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답] 송나라 때에는 먼저 실직을 쓰고 뒤에 증직을 썼으나 일월에 선후가 있는 것처럼 거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증직을 먼저 쓰고 뒤에 실직을 썼고, 우리 집안에서도 또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고칠 수가 없습니다. 노수신이 퇴계에게 묻자 퇴계가 답변한 말이 있습니다.

노수신이 “증직을 먼저 쓰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입니다. 해로움이 없겠습니까?”라고 묻자 퇴계가 “우리의 풍속에 먼저 증직을 쓰는 것은 나라의 은혜를 앞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관직의 고하와 사업의 선후는 모두 거꾸로 되었으니 변화시켜 옛 것을 따르고자 해도 할 수 없다.”<sup>41)</sup>

위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강석기는 중국과 한국의 실례를 비교하며 우리의 예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한국 예학의 성립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김장생 학파의 예론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 매우 의의 있다.

수록 내용에서의 특징으로 권수에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家禮序朱子序文兩病之義』가 수록되어 있고, 상권 參의 『參再拜』는 내용을 김장생의 『疑禮問解』와 대교해보니 『儀節四拜』와 동일하

39) 『月塘集』別集, 『疑禮問解 上』, 『家禮序』. “問 家禮序 某之愚蓋兩病焉 所謂兩病者 未詳其指 答 此兩病 所見各異 退溪以爲自遺其本 至急於文 一病 自自有志 至及於禮也 一病 或人以爲自三代之際 至一時之法 一病 自然亦或詳 至及於禮也 一病 而愚則以爲自自有志 至其要 一病 自困於貧窶 至及於禮也 一病 未知是否.”

40) 宋時烈, 『宋子大全』 卷14, 李喜朝錄.

41) 『月塘集』別集, 『疑禮問解 上』, 通禮. “問 神主贈職之題 俗有二例 或先題贈職而後實職 或先題實職而後贈職 未知何者爲是耶 答 宋朝先書實職 後書贈職 日月先後 不爲倒錯 我國則必先贈後實 吾家先世亦然 不可卒改也 盧蘇齋守愼問於退溪 退溪有答說 盧蘇齋問 先書贈職東俗也 無害否 退溪答 東俗先書贈職 先國恩之意也 然官之高下 事之先後 皆倒置 欲變而從古未果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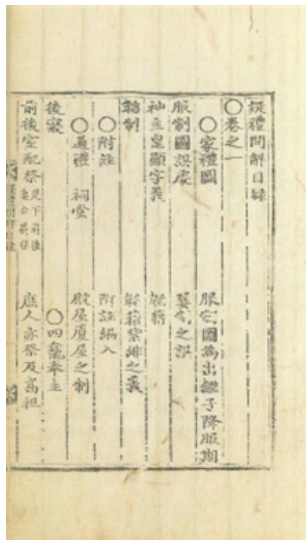
였다. 그리고 김장생의 『疑禮問解』에서 「握手四繁之非」, 「服中死者襲殮用吉」을 각각 「握手之制」, 「喪中死者襲殮之服」으로 표기하여 제목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다.

#### 4. 異同 사항 및 특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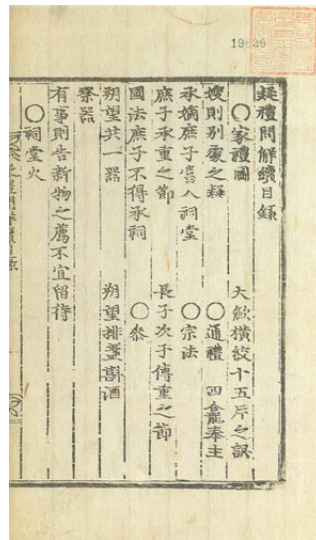
##### 4.1 형식의 비교

위 3종의 도서는 한국 초기 예학서 중에서도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였다는 점과 당시 조선의 시대 상황에 맞는 예를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김장생 학파의 예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출판문화사적 의의가 있다. 이 3종의 도서를 구체적으로 비교·대조하여 異同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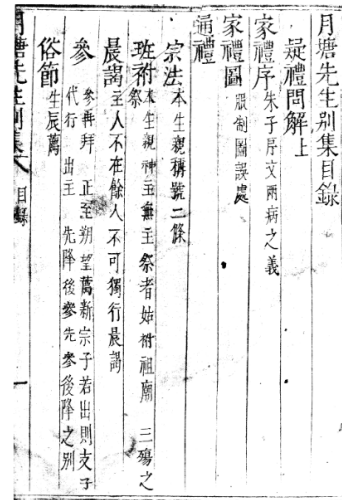
##### 4.1.1 목록형식과 판면체제 비교



『疑禮問解』



『疑禮問解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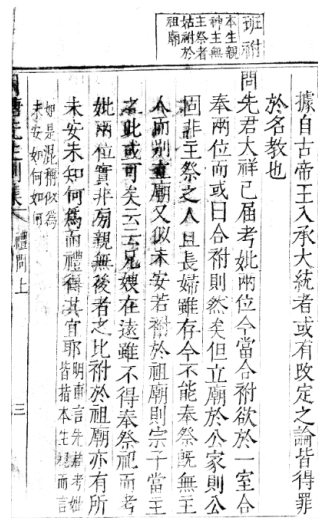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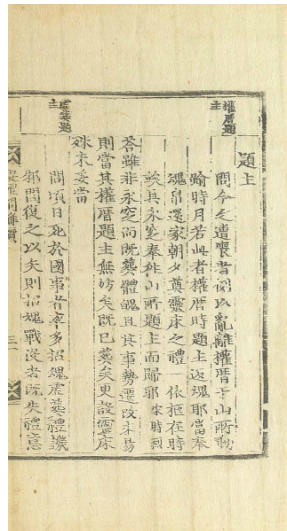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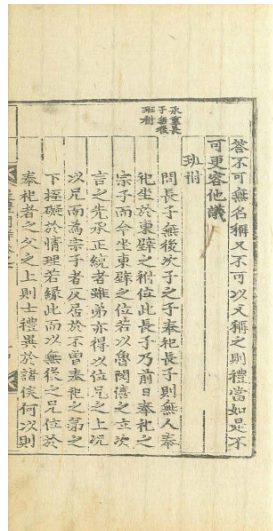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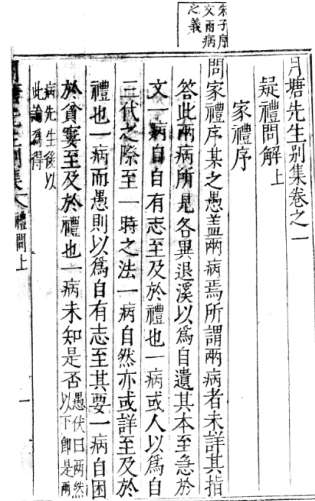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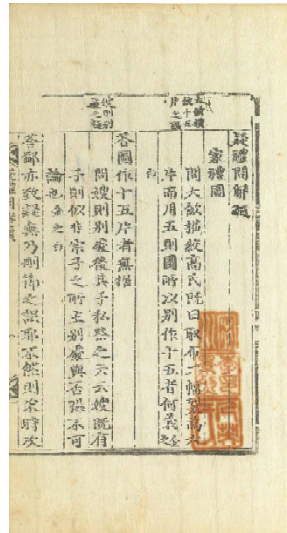


『疑禮問解(姜)』

<그림 2> 목록 형식 비교

목록형식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장생의 『疑禮問解』와 김집의 『疑禮問解續』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김집이 편집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비교하여 『疑禮問解(姜)』은 분류와 분류에 해당하는 주제어는 기준자로 질문의 제목은 소자쌍행으로 썼다.

4.1.2 판면비교



『疑禮問解』

『疑禮問解續』

『疑禮問解(姜)』

<그림 3> 판면 체재 비교

판면체재를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장생의 『疑禮問解』와 김집의 『疑禮問解續』은 같은 시기에 刊行되어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분류의 주제어는 상란으로부터 한자 내려 쓰고, 질문은 두자 내려 썼으며, 답은 내려 쓰지 않았다. 질문을 간략화하여 권수의 목록에 수록하였

으며, 본문에서는 상란에 두주형태로 제목을 기입하였다. 관심 또한 김장생의 『疑禮問解』와 김집의 『疑禮問解續』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상하내향 화문어미이며 그 중간에 관심제와 장차 표시가 있다.

그러나 『疑禮問解(姜)』은 중분류의 주제어를 상란의 두주로 쓰되 소자가 아닌 기준 자와 같은 크기로 썼고, 관심도 상백어미만 있다. 관심제는 어미 위쪽에 ‘월당선생별집’으로 되어 있고 어미 아래 소자로 ‘禮問 上, 下’와 장차 표시가 있다. 그리고 질문자의 성함과 질문 끝에 소자로 썼는데 의례문해 속의 경우 관직명까지 썼다. 이와는 달리 『疑禮問解(姜)』에서는 대분류의 주제어를 두 글자 내려쓰고, ‘問’자만 상란에 붙여 쓰고 전체 본문을 한 글자 내려썼다. 또한 중분류의 주제어는 상란에 두주형태로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글자로, 각 질문의 제목은 소자쌍행으로 썼다.

#### 4.2 수록내용의 비교

비교 결과를 간략히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분류항목 및 문해수 비교

『疑禮問解』		『疑禮問解續』		『疑禮問解(姜)』	
疑禮問解序(金尙憲 1646)		X			
疑禮問解凡例		X		申翊聖 識(1638)	
疑禮問解目錄		疑禮問解續目錄		月塘先生別集目錄	
				家禮序	1
家禮圖	7	家禮圖	2	家禮圖	1
附註	1				
<b>小計</b>	<b>8</b>	<b>小計</b>	<b>2</b>	<b>小計</b>	<b>2</b>
通禮		通禮	2	通禮	
祠堂	2				
四龕奉主	2				
宗法	12	宗法	4	宗法	1
班祔	8			班祔	2
附別室藏主	3				
晨謁	1			晨謁	
出入必告	1				
參	7	參	4	參	4
俗節	2			俗節	1
有事則告	4			有事則告	2
祠堂火	1	祠堂火	3		
遞遷	7	遞遷	4	遞遷	2
附不遷之位	3			不遷之位	2
深衣制度	3	深衣	2		
居家雜儀	2				
<b>小計</b>	<b>58</b>	<b>小計</b>	<b>19</b>	<b>小計</b>	<b>14</b>
冠禮 冠	5	冠昏禮	2	冠禮	1
笄禮	1				
昏禮	12			昏禮	3
<b>小計</b>	<b>18</b>		<b>2</b>		<b>4</b>

『疑禮問解』		『疑禮問解續』		『疑禮問解(姜)』	
喪禮		喪禮			
初終	3	初終	1		
主婦	1			主婦	2
易服	2				1
治棺	1			治棺	
沐浴	1				
襲	14	襲	3	襲	4
飯含	3			飯含	1
銘旌	6			銘旌	1
親厚入哭	1				
小殮	17	小殮	2	小殮	3
大斂	10	大斂	2		
殯喪	1				
成服+杖(오류?)	23	成服	23	成服	4
斬衰	11			斬衰	3
齊衰	4			齊衰	5
附並有喪	24			並有喪	8
杖期	17			杖期	1
不杖期	14				
齊衰三月	1				
大功	8			大功	1
小功	6			小功	1
總麻	10			總麻	1
附童子服	1				
殯服	5				
附稅服	3				
附變除	1			變除	1
心喪(오십집)	2				
朝夕哭	1				
莫	4	莫 上食	5		
上食	4			上食	2
吊(弔)	10	吊	6	吊	2
聞喪	4				
奔喪	2			奔喪	2
治葬	8			治葬	3
作主	3				
遷柩	2			遷柩	1
朝祖	4			朝祖	1
遷于廳事	2				
祖奠	4				
遣奠	2				
發引	1	發引	5		
窆	8			窆	2
祠后土	1				
題主	16	題主	7	題主	5
成墳	3				
附虛葬	1				
附權葬	1				
改葬	13	改葬	12	改葬(反哭引)	1
反哭	3			反哭	1
虞	15	虞	4	虞	2
卒哭	3			卒哭	1

『疑禮問解』		『疑禮問解續』		『疑禮問解(姜)』	
祔	10	祔祭	5		
小祥	15			小祥	4
大祥	9			大祥	4
禫	11	練祥禫	21	禫	6
附吉祭	7	吉祭	1		
居喪雜儀	5	居喪雜儀	15		
書疏	1				
<b>小計</b>	<b>363</b>	<b>小計</b>	<b>112</b>	<b>小計</b>	<b>77</b>
祭禮 時祭	20	祭禮 時祭	17	祭禮 時祭	9
初祖	2			初祖	3
禴	2				
忌日	14	忌祭	4	忌日	7
墓祭	9	墓祭	3	墓祭	7
		家禮諺解	1		
<b>小計</b>	<b>47</b>	<b>小計</b>	<b>25</b>	<b>小計</b>	<b>26</b>
				喪禮 成服	1
				并有喪	1
				杖期	1
				<b>小計</b>	<b>3</b>
총계: 494			160		126
李植 跋(1634)					
申翊聖 識(1634)				鄭弘溟 跋	
拾遺	通禮 祠堂	11			
	喪禮 初終	1			
	成服	4			
	朝夕哭奠 上食	6			
	奔喪	1			
	治裝	3			
	題主	4			
	改葬	1			
	權葬	1			
	反哭	1			
	虞祭	5			
	卒哭	1			
	小祥	3			
	大祥	2			
	吉祭	1			
	祭禮 時祭	2			
	忌祭	5			
	墓祭	6			
	<b>小計</b>	<b>58</b>			
	附喪祭禮答問辨疑				
총합: 552					

<표 1>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권수 사항으로 『疑禮問解』는 김상헌의 『疑禮問解序』(1646), 『疑禮問解凡例』, 『疑禮問解目錄』이 있으나, 『疑禮問解續』에는 『疑禮問解續目錄』만 있고, 『疑禮問解(姜)』에는 申翊聖의 後識(1638)와 『月塘先生別集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1권 앞부분의 경우 『疑禮問解』와 『疑禮問解續』에는 家禮圖만 있고, 『疑禮問解(姜)』에는 『家禮序』가 가례도 앞에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림을 제시한 것은 김장생의 『疑禮問解』 뿐이다.

분류방식으로 대분류는 通禮, 冠禮, 笄禮, 昏禮, 喪禮, 祭禮 등 5개 범위를 설정한 것은 3종이 동일하고, 喪禮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 다만 『疑禮問解』에서는 冠禮, 笄禮, 昏禮 나누었으나 『의례문해속』에서는 冠昏禮로 합쳤고, 『疑禮問解(姜)』에서는 通禮, 昏禮를 나누었다. 권말사항으로 『疑禮問解』는 李植이 지은 跋(1634)과 申翊聖의 識(1634)가 있으나 『疑禮問解續』은 권말사항이 없다. 『疑禮問解(姜)』에는 권말에 鄭弘溟 跋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 항목 수는 『疑禮問解』의 경우 「가례도」와 「家禮附註」의 관련 내용이 8, 통례 19, 관례 및 혼례 18, 상례 363, 제례47항목과 『의례문해습유』의 통례 11, 상례 34, 제례 13 등 58항목으로 총 55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疑禮問解續』은 가례도2, 통례 19, 관례 및 혼례 2, 상례 112, 제례 47항목으로 총 160항목이다. 『疑禮問解(姜)』은 가례서와 가례도 2, 통례 14, 관례 및 혼례 4, 상례 77과 말미에 3항목, 제례 26항목 등 126항목이다. 『疑禮問解(姜)』의 126 문항 중 75 항이 『疑禮問解』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질문을 간략화 하였다.

## 5. 결론

金長生의 『疑禮問解』와 그의 아들인 金集의 『疑禮問解續』, 김장생의 제자인 姜碩期的 『疑禮問解』 등 3종의 도서는 초기 예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 도서의 출판문화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3종을 비교하여 고찰하는 작업을 통해 김장생을 중심으로 초기 예학자들의 예학에 대한 인식과 예의 실행에 있어서 의심나는 부분을 규명하고 예를 바르게 실천하고자 했던 의지를 널리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시기의 예서들이 출간된 과정과 의의를 살펴볼 수 있었다.

『疑禮問解』는 김장생이 禮에 관한 문답을 기록한 것으로, 그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의례의 형식과 절차가 변화하는 變禮나 예의 모든 분야에서 의심나는 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답하고 논의하는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禮說에 대해 문답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반드시 이전의 전적을 참고하고 주변에 질의하여 확정된 견해를 마련하였고, 喪禮와 葬禮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자세하게 고찰하여 정론을 확립하였다. 이 저술은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예를 행할 때 典範으로 사용되었다. 이 책을 편찬한 것은 김집과 몇몇 제자였다. 김집은 1643년 봄에 이 책을 교정하였다. 김장생이 예설에 대한 내용을 모은 것이 卷帙을 이루었으나 미처 초고로 바꾸어 놓지 못한 상태였는데 김집과 몇 명의 제자들이 교정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4권의 책으로 만들었고, 1646년(인조 24) 이후에 간행하였다.

『疑禮問解續』는 김집이 『疑禮問解』를 교정하고 편성한 뒤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이 책을 편찬한 것으로 1643년에 원고를 마무리하고 1646년 이후에 『疑禮問解』와 같이 출간했다. 김집은 家學으로서 예학의 정수를 물려받은 학자이다. 김장생이 예설에 관해 주고받은 문답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직접 보았을 것이 분명하고, 김장생 사후인 1631년부터 자신도 이런 작업을 계승하여 독자적인 편찬서를 만들게 되었다. 이것은 예학이 가학과 사승의 관계를 통해 전승되었음을 보여주며, 예서 편찬의 발전적 전개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疑禮問解(姜)』은 姜碩期가 스승인 김장생에게 예학을 배우고, 김장생을 본받아 예설에 관한 것 중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기록해 두었다가 김장생에서 문의하거나 하여 의심이 해결된 뒤에 다시 그 사실을 기록하고 김장생의 산정을 거쳐 1638년 이전에 이 책을 완성하였다. 강석기 집안은 姜嬪의 옥사로 멸문이 되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유고를 정리해 문집을 간행하지 못했다가 1717년 증손인 봉서가 강석기의 문집을 편찬하기 위하여 유문을 수집 정리하여 편찬을 교정하고 부록까지 정리해서 정서해 두었던 교정본을 1772년 5대손 강명달이 『月塘集』을 활자본으로 간행 시 이 책을 별집으로 편찬하였다. 그동안 『疑禮問解(姜)』은 강석기가 김장생의 제자이므로 당연히 『疑禮問解』 편찬 이후에 저술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강석기가 가장 먼저 『疑禮問解』를 저술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3종의 예서에 대해 편찬시점으로 말한다면 『疑禮問解』, 『疑禮問解(姜)』, 『疑禮問解續』의 순서가 될 것이며, 한 권의 책으로서 편집을 마친 상태로 보면, 『疑禮問解(姜)』, 『疑禮問解』, 『疑禮問解續』의 순서가 될 것이다. 이는 예서로서의 『疑禮問解(姜)』이 점유하고 있는 가치와 의의를 보여준다. 이 3종의 예서는 한국 예학의 기본 체계가 성립되는 초기에 한국식 예학의 완성을 위해 노력한 3인, 시기와 지역을 같이 하며 또한 같은 학문적 분위기를 공유했던 학자들의 노력이 이와 같은 결실로 완성된 것이다. 여기에 출판문화사적 의의가 내재되어 있다.

### <참고문헌>

- 『畸庵集』.
- 『樂全堂集』 卷6.
- 『魯西遺稿』.
- 『東江遺集』.
- 『沙溪全書』 39-45.
- 『宋子大全』 卷14.
- 『慎獨齋全書』.
- 『月塘集』.
- 『朱子全書』 第7冊, 家禮 권2. 上海古籍出版社, 2002.
- 『清陰集』 卷38.
- 『澤堂集』 別集 卷5.
- 『국역 명재유고』.

『국역 사계김장생전서』.

『국역 신독재전서』.

- 김선기. “沙溪 金長生の 學問과 禮學思想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金善昱. “慎獨齋 金集先生의 禮教.” 『인문학연구』 Vol.25 No.2(1998). 269-291.
- 김용걸. “沙溪先生의 삶과 禮學精神.” 『유교사상문화연구』 19(2003). 267-288.
- 김현수. “17세기 전반 栗谷學派 禮學의 爭點과 傾向 研究: 『疑禮問解』·『疑禮問解續』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제41집(2011). 155-184.
- 노인숙. “沙溪禮學과 朱子家禮.” 『유교사상문화연구』 19(2003). 313-331.
- 徐源赫. “사계 김장생의 예학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대학원. 2013.
- 李文周. “沙溪 金長生の 禮說에 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82.
- 鄭玉子. “17세기 전반 禮書의 성립 과정: 김장생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11(1990). 407-448.
- 韓基範. “沙溪 金長生과 慎獨齋 金集의 禮學思想 연구.” 博士學位論文. 忠南大學校大學院. 1990.
- 황의동. “기호유학에서 金長生, 金集의 성리학적 위상.” 『大同哲學』 제53집(2010). 89-107.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eong-eum Jip*, vol.38.

*Dong-gang Yujip*.

*Giam Jip*.

*Myeon-gae Yu-go* (Korean translation).

*Nag-jeon-dang Jip*, vol.6.

*No-seo Yu-go*.

*Sag-ye Jeon-Seo* (Korean translation).

*Sag-ye Jeon-Seo*, vol.39-45.

*Sin-dok-jae Jeon-Seo* (Korean translation).

*Sin-dok-jae Jeon-Seo*.

*Song-ja Dae-jeon*, vol.14.

*Taeg-dang Jip*, supplement, vol.5.

*Wol-dang jip*.

*Zhu-Ja Jeon-seo*, vol.7. 2002. Shanghai Ancient Books Publishing House.

- Han, Gi-bum. 1990. *(A) study of Confucian Ritualism's Thoughts of Sagye Kim Jang-saeng and Sindokjae Jip-Kim*. Ph.d.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Hwang, Yi-dong. 2010. "Status of Jangseng Kim and Jib Kim as Sung-Confucius Scholars in Kiho Confucianism School." *Journal of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53: 89-107.
- Jung, Ok-Ja. 1990.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itual Study Books in the first half of 17th Century: Focused on Kim Jang-sung." *Korean culture*, 11: 407-448.
- Kim, Hyun-soo. 2011. "A study of Trend and Issue on Yulgok School's Lixue in the first half of 17c -Centering around Uiremunhae and Uiremunhaesuk."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41: 155-184.
- Kim, Sun-ki. 2003. *A study of Sagye Kim Jang-saeng's academic achievements*. M.A.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 Kim, Sun-uk. 1998. "Confucian Ritualism's Thoughts of Sindokjae Jip-Kim." *THE JOURNAL OF HUMANITIES STUDIES*, 25(2): 269-291.
- Kim, Young-Gul. 2003. "The master, Shagye's life and his mind of Lixue." *THE STUDY OF CONFUCIANISM*, 19: 267-288.
- Lee, Moon-Joo. 1982. *(A) study of Sagyo Kim Jangsang's Li thought*. M.A. Department of Oriental Philosophy,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 Ro, In-suk. 2003. "Lixue in Shagye and 『Zhuzijiali』." *THE STUDY OF CONFUCIANISM*, 19: 313-331.
- Suh, Won-Hyuk. 2013. *Research of Sagye Kim Jang-saeng's ritual-study thought*. M.A.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부록 1] 3종 목록 및 수록내용 목록 비교42)

『疑禮問解』						『疑禮問解續』			『疑禮問解(姜)』		
疑禮問解序						X			申翊聖識		
疑禮問解凡例						X			X		
疑禮問解目錄						疑禮問解目錄			月塘先生別集目錄		
총	권	전	월	대/중분류	소분류(제목)	질문자	대/중분류	소분류(제목)	질문자	대/중분류	소분류(제목)
권1	35		上	家禮圖	服制道爲出繼者降服期	黃宗海	家禮圖	大斂橫紋十五斤之誤	金之白	家禮序	朱子序文兩病之義***
					服制圖誤處*	吳允諧		嫂則別處之疑	金之白	家禮圖	服制圖誤處*
					製制之誤	申湜					
					神主皇顯字義	宋浚吉					
					韜籍	宋浚吉					
					韜制	宋浚吉					
					韜籍紫緋之義	宋浚吉					
				附註	附註編入	黃宗海					
				通禮 祠堂	殿屋厦屋之制	申湜	通禮	四龕奉主	李文義	通禮	
					後寢	申湜		承嫡庶子當入祠堂	李文義		
				四龕奉主	前後室配祭見下前後妻合祭條	X					
					庶人亦祭及高祖	宋浚吉					
				宗法	七十老而傳	宋浚吉	宗法	庶子承重之節	崔碩儒	宗法	本生親稱號**
					長子無後次子之子傳重	黃宗海		長子次子傳重之節	崔碩儒		
					立後子必聞官	黃宗海		[上同]	李文載		
					立後後已生子	宋浚吉		國法庶子不得承祠	崔碩儒		
					長子繼後則次子不宜奉祀	宋浚吉					
					兄亡弟及後兄妻立後	趙希逸					
					獨子爲大宗後	黃宗海					
					次孫承重死後嫡孫妻及次孫妻皆立後	申湜					
					歸宗	X					
					良妾子封祀	黃宗海					
					本生親稱號**	姜碩期					
					[문2]제목없음	姜碩期					
				班祔	承重長子無後班祔	黃宗海				班祔	本生親神主無主祭者姑祔於祖廟**
					班祔分排	宋浚吉					三廟之祭**
					祔位坐次	宋浚吉					
					姪之父自立祠堂	宋浚吉					
					三廟立主見下殯喪條						
					殯喪虞後班祔見下殯喪條						
					三廟之祭**	姜碩期					
					本生親神主無主祭者姑祔於祖廟**	姜碩期					
				附別室藏主	祭三代家玄孫承重而高祖母在則別室祭高祖	宋浚吉					
					無後姑姊妹神主祭之別室	宋浚吉					
					妾母祭所及稱號	宋浚吉					
				晨謁	主人不在餘人不可獨行晨謁**	姜碩期				晨謁	主人不在餘人不可獨行晨謁**
				出入必告	瞻禮唱喏	黃宗海					

42) 표 우측 권차에서 ‘총’은 총담대소장본, ‘권’은 사계전서, ‘월’은 『疑禮問解(姜)』.

\* 내용은 동일하나 질문자가 강석기가 아닌 항목

\*\* 김장생의 『疑禮問解』에 강석기가 질문자인 것과 『疑禮問解(姜)』에 수록된 동일 항목

\*\*\* 『疑禮問解(姜)』에만 수록된 항목

『疑禮問解』			『疑禮問解續』			『疑禮問解(姜)』			
36	參	重行序立	申湜	參	朔望共一哭	鄭基磅	參	參再拜(=儀節四拜)**	
		出主**	姜頤期		朔望排盞斟酒	崔慎		正至朔望薦新宗子若出則支于代行	
		儀節四拜**	姜頤期		祭器	鄭基磅		出主	
		先降後參先參後降之別*	宋浚吉		有事則告新物之薦不宜留待	鄭基磅		先降後參先參後降之別*	
		襪衫	X						
		帽子	X						
		假髻 特髻	X						
		俗節	四節墓祭並參家廟	宋浚吉				俗節	生辰薦**
			生辰**	姜頤期					
		有事則告	贈職宜後書**	姜頤期				有事則告	贈職宜後書**
			焚黃**	姜頤期					焚黃**
			告事或不用祝	黃宗海					
			孝玄字義	X					
		祠堂火	家廟焚改神主	X	祠堂火	喪服中祠堂火改題主時變服 未題主時設位三月 未題主時祭祀	金榮後 金榮後 金榮後		
		遷遷	最長房之子難親未盡當遷於次長房	黃宗海	遷遷	最長房有祖廟同奉一廟及改旁題	鄭基磅	遷遷	最長房不能奉祧主則宗子仍安於別室**
最長房當改題祧主	黃宗海			庶嫡先後最長房	崔頤儒		宗子死亡後叔父奉祀則祧主當遷奉於祠堂**		
最長房不能奉祧主則宗子仍安於別室**	姜頤期			遷遷時遺衣服亦隨而遷	崔慎				
宗子死亡後叔父奉祀則祧主當遷奉於祠堂**	姜頤期			始祖親盡之祭	宋浚吉				
最長房題祧主時親盡宗子位次	黃宗海								
最長房之義	X								
庶孽爲最長房	宋浚吉								
附不遷之位	親盡祖封動不遷高祖當遷**	姜頤期				不遷之位	親盡祖封動不遷高祖當遷**		
	始封動者不遷次動當遷**	姜頤期					始封動者不遷次動當遷**		
	遠代不遷位稱號	宋浚吉							
深衣制度	深衣之制	X	深衣	大帶之制	宋浚吉				
	裁裳之制	李惟泰		[同上]	宋浚吉				
	幅巾	李惟泰							
居家雜儀	教之自名	申湜							
	妻父母稱號及自稱	黃宗海							
冠禮	冠	士冠禮	李惟泰	冠昏禮	冠婚父母昏禮主婚者異同	宋浚吉	冠禮	服中行冠禮	
		三加冠服	李惟泰		醮字	崔慎			
		字冠者	李惟泰						
		醮醮之異	X						
		將冠遇喪見下聞喪條	X						
笄禮	許嫁	X							
昏禮	男女嫁娶	宋時烈				昏禮	舅往婦家見婦**		
	婚書式	宋時烈					先行見舅姑之禮舅姑禮之		
	納徵	宋時烈					成婚以後廟見**		
	轎制	X							
	交拜	宋浚吉							
	牢字義	宋浚吉							
	舅往婦家見婦**	姜頤期							
	贊幣	宋浚吉							
	成婚以後廟見**	姜頤期							
	舅姑歿後廟見	宋浚吉							
	婿見婦之父母有幣	宋浚吉							
將婚遇喪見下聞喪條	X								
喪禮	喪禮當遵用朱子遺命	宋浚吉	喪禮	初終	易服布深衣	崔頤儒			
	復衣	宋浚吉							
	復衣不用於襲殮	宋浚吉							
	復衣置靈座	黃宗海							

『疑禮問解』			『疑禮問解續』			『疑禮問解(姜)』			
권2		主婦	主婦稱謂**	姜頤期			主婦	主婦稱謂** 主喪者之妻亞獻	
		易服	齊衰去冠 被髮	黃宗海 X					
		治棺	喪具預備	宋浚吉			治棺	灰柒	
		沐浴	沐浴水	黃宗海					
		襲	襲肚勒帛之制	X	襲	婦人襲具	崔頤儒	襲	襲用網巾行際
			襲衣右衽見下小斂條	李惟泰		朋友飯含之節	崔頤儒		襲用深衣兼用公服*
			襲用網巾行際	姜頤期		父在主席子庶婦之喪	崔頤儒		握手之制**
			幅巾[之制]見上深衣條	X					服中死者襲殮用吉**
			女喪用掩	X					
			襲用深衣兼用公服 *	X					
			握手	宋時烈					
		握手四繁之非(月:握手之制[간학])**	姜頤期						
		喪禮 襲	冒制	宋時烈					
			並有祖父母及父母喪襲殮先後	姜頤期					
			服中死者襲殮用吉(月:喪中死者襲殮之服 [간학])**	姜頤期					
			始死奠用脯醢	X					
			襲小殮奠家禮儀禮異同	黃宗海					
			奠于尸東	宋浚吉					
		飯含	飯含	姜頤期				飯含	飯含時主人人被髮之義**
			含錢 飯含時主人猶被髮(=飯含時主人人被髮之義)**	黃宗海 姜頤期					
		銘旌	家禮銘旌條註誤字**	姜頤期				銘旌	家禮銘旌條註誤字**
			銘旌尺度	黃宗海					
			大夫士之辨	X					
			夫人銘旌稱號從夫實識	宋浚吉					
			庶孽夫人銘旌稱號	宋浚吉					
			立銘旌 並圖	申湜					
		親厚入哭	主人未變服吊者不須變服及主人出見尊者	李惟泰					
		小殮	絞布連幅	黃宗海	小殮	舒絹疊衣	金之白	小殮	左衽不紐之義*
			[左衽不紐](상 제복X)*	宋時烈		布頭頓	宋浚吉		小殮後變服**
			小殮未結絞	黃宗海					白巾布**
			小殮變服(月=小殮後變服 일부 생략)**	姜頤期					
			白巾布**	姜頤期					
			齊衰以下去帽著頭巾	黃宗海					
			婦人鑿斬衰以麻齊衰用布	黃宗海					
			婦人簪	宋浚吉					
			布頭巾	黃宗海					
			括髮之制及齊斬括免之辨	宋浚吉					
環絰	李惟泰								
襲絰在小殮後	李惟泰								
遷遷尸牀	申湜								
小殮後主人始就阼階下	宋浚吉								
小殮訖謝賓	宋浚吉								
小殮奠主人不拜之疑	宋浚吉								
代哭	X								
大斂	棺中用褥席	李惟泰	大斂	大斂絞布	安重				
	棺中大斂非占	宋時烈		大斂畢後留兩婦人	崔慎				
	始死所覆之衾至大殮用之	宋浚吉							
	大斂變服	宋浚吉							
	大斂後謝賓見下小斂條	X							

『疑禮問解』			『疑禮問解續』			『疑禮問解(姜)』		
	大斂後設靈座故處	宋浚吉						
	成殯或沙或塗	宋浚吉						
	殯後主人位以北爲上	X						
	靈牀東首之非	申湜						
	殯廳長燈非禮	X						
殯喪	三殯治喪之禮	洪雱						
成服	大斂雖過時不可即日成服	吳允諧	成服	絞帶	安弘重	成服	喪布連幅**	
	喪布連幅**	姜頤期		經帶絞帶並帶	崔頤儒		衰喪除服	
	凡衰外削服(月=衰皆外削幅之疑)**	姜頤期		出入只帶絞帶	崔頤儒		衰皆外削幅之疑**	
	斬衰中衣絹邊	宋浚吉		子與祖父不可同杖	崔頤儒		父母階喪成服先後	
	冠梁作輒	X		履制	鄭基磅			
	首絰	X		嫡孫已承重已亡又已移宗其婦不當服承重服	宋浚吉			
	斬衰服首腰絰寸數等差	宋浚吉		長子廢疾服	閔後薦			
	斬衰首絰左右本之辨	宋浚吉		爲人後者之妻爲本生舅姑服期	崔頤儒			
	首絰不纓絰之非	宋浚吉		爲嫡婦嫡孫兄弟之爲父後者服	崔頤儒			
	腰絰散垂之制	宋浚吉		姑姊妹無夫與子者服期	崔頤儒			
	絞帶之制	李惟泰		出嫁姑爲姪長殯	宋浚吉			
	緝衽斬衰之異	宋浚吉		慈母服	吳沔川 達川			
	負版辟領衰楊儀節之非	宋浚吉		庶母服	鄭基磅			
	期以下衰不裁闕中之非	宋浚吉		承重妻子之子爲父之所生母服	宋浚吉			
				次庶子爲所生母喪	崔頤儒			
				外祖父母收養服	宋浚吉			
				有服之親收養不可服	申吳			
				舅妻之有情義者服繼後心喪	李鑽○○			
				五服相吊	崔○			
				心喪服	申吳			
				爲人後者爲所後外祖服	宋時烈			
				喪服見失改製	宋浚吉			
				并有喪諸節	宋時烈			
杖(오류)	[杖]	X						
	苴杖六節之非	X						
	婦人服制	姜頤期						
	童子服制	宋浚吉						
	童子無首絰	宋浚吉						
	衰服不補不改	宋浚吉						
	並有祖父母及父母喪成服先後	姜頤期						
	喪服之位以輕重爲次	黃宗海						
	五服相吊儀	黃宗海						
斬衰	斬衰三年	X				斬衰	婦爲舅姑加服三年承重孫妻同	
	妾爲君之父母	宋浚吉					曾玄孫承重其母若祖母所服	
	練後始爲其後者稅服	申湜					夫承重其姑在從服與否通典諸說不同	
	庶子爲長子不服三年							
	父在爲長子不服三年	宋浚吉						
	爲長子不服三年有四種 以上三條合爲一聞							
	喪服圖式祖爲嫡孫三年之誤	宋浚吉						
	爲所後曾高祖承重服	申湜						
	承重孫妻爲祖父母服及玄孫承	姜頤期						

『疑禮問解』		『疑禮問解續』		『疑禮問解(姜)』	
	重孫妻若曾孫妻服				
	失君父不如死亡服	宋時烈			
	嫡孫在喪無後而亡庶孫代服	宋浚吉			
齊衰	妻爲不之繼母嫡母養母慈母從夫服**	姜頤期		齊衰	妻爲不之繼母嫡母養母慈母從夫服**
	母爲嫡子無壓降	姜頤期			嫡孫父卒祖在爲母服
	收養子服	黃宗海			嫡孫父卒祖在爲祖母
	族屬雖有恩義不可加服	宋浚吉			父卒祖再爲祖母也祖字之誤
					母爲長子父在猶三年
附並有喪	並有君父喪	李惟泰		並有喪	父母階喪異几筵於一處對卓而祭
	父母階喪異几筵持重服	宋浚吉			前後喪几筵合設一廳持重服朝夕哭
	父喪中母死及母喪中父死服	宋浚吉			並有祖父母及父母喪襲斂先後及持服與稱號*
	父喪未葬以斬衰行事母殯	黃宗海			並有祖父母及父母喪成服先後
	父母喪階在道先父下棺先母 <small>見下發引及空條</small>	宋浚吉			父死喪中嫡孫承重改題主宜在喪畢後**
	父喪中祖父母死代服	宋浚吉			祖喪中父死代服*
	祖喪中父死代服*	宋浚吉			練後不制祖父母服之疑
	並有祖父母及父母喪襲斂先後 <small>見上襲斂條*</small>	X			夫喪中祖死服周之疑
	並有祖父母及父母喪成服先後 <small>見下成服條*</small>	X			
	嫡孫祖母喪中母亡時服及稱號(議)	宋浚吉			
	並有喪前喪大祥當服其服而行祭 <small>見下大祥條</small>	宋浚吉			
	父喪未畢不可行祖母禫及吉祭 <small>見下禫及吉祭條</small>	X			
	並有喪前喪之禫過時不祭 <small>見下禫條</small>	X			
	父死喪中嫡孫承重改題主宜在喪畢後**	姜頤期			
	杖期	父在爲母三年家禮回時王制**	姜頤期		杖期
	父在爲母當從古禮服期	申澁			
	父在爲母期楊儀與家禮具	申澁			
	父在母喪練祭與其服自別 <small>見下小祥條</small>	X			
	父在母喪祥後當撤几筵 <small>見下大祥條</small>	X			
	父在母喪大祥後朝夕上食之非 <small>見下大祥條</small>	X			
	心喪書疏式	黃宗海			
	父在母喪不當行吉祭 <small>見下吉祭條</small>	X			
	父在母喪計吉祭之期復常	姜頤期			
	父在爲出母服周	李惟泰			
	爲嫁母服	李惟泰			
	爲父後者爲嫁母出母服及母爲子服	李惟泰			
	爲父後者爲出母更歸依已者不服	李惟泰			
	嫁母出母輕重[ 是문: 出母嫁母輕重]	李惟泰			

		『疑禮問解』		『疑禮問解續』		『疑禮問解(姜)』			
권3	喪禮 不杖期	父在爲慈母杖期猶爲心喪及爲慈母黨無服	李惟泰						
		父卒爲父後者及諸子爲嫡母繼母改嫁服	李惟泰						
		爲所後母及祖母見出者不服	李惟泰						
		爲出繼子復	宋浚吉						
			出繼者所生親喪以服爲位次及服盡後參祭哭	黃宗海					
			生不及祖父母諸父兄弟而父稅喪已則否 見下稅服條	X					
			妾孫承重爲其所生祖母無服	宋浚吉					
			女適人者無夫而有女子則不以無子論	黃宗海					
			無夫與子者爲其父母猶服期	宋時烈					
			家禮不杖條繼母嫁母之誤字	申湜					
			姊妹既嫁相爲服	宋時烈					
			遭服而出繼者當遂其服	宋浚吉					
			出繼者爲本宗適人者再降	宋浚吉					
			女君沒後妾爲女君黨及女君爲妾	宋浚吉					
			祖喪期後服色	宋浚吉					
			服中赴舉	宋浚吉					
			服中聞樂	宋浚吉					
			齊衰三月	爲大宗子大宗婦服	X				
			大功	大功始去服負版辟領衰	黃宗海			大功	大功以下計間**
				出繼者爲本親適人者再降	吳允譜				
				出繼者之妻爲大本親再降	宋浚吉				
				姑爲嫡婦不爲舅後者	宋時烈				
				女適人父在則當爲父後者降	宋浚吉				
				祖父爲次孫承重者服本服	宋浚吉				
				大功廢業	申湜				
				大功以下計間**	姜頤期				
			小功	出墓堂及爲人後者本生母黨服	宋浚吉			小功	嫡孫不爲舅後者
				嫁母黨服	宋浚吉				
				繼母黨服	宋浚吉				
				外親敵人不降	宋浚吉				
				小功脫服 見下稅服條	X				
				內外兼親者服制當以親者爲先	李惟泰				
			總麻	庶子爲父後者嫡母卒後爲其母	李惟泰			總麻	無子庶母**
				爲人後爲本生外親	宋時烈				
				庶子爲父之他妾	黃宗海				
				爲妻嫡母	宋浚吉				
				無子庶母**	姜頤期				
				爲父之曾高祖	宋浚吉				
				舅之妻	宋浚吉				
				兩妾相爲服	X				
				總不降之誤	吳允譜				
				服制輕重之辨	宋時烈				
			附童子服	童子爲長者遞減報服	宋浚吉				
	殤服	殤服遞降	洪雱						
		凡殤計年以月							
		生未三月之殤	李惟泰						
		嫡長殤與他殤同							
		冠笄嫁娶不爲殤 以上四條合爲一聞							
	附稅服	生不及祖父母諸父兄弟而父稅喪而則否	宋浚吉						
		降而在總小功者稅	宋浚吉						

『疑禮問解』			『疑禮問解續』			『疑禮問解(姜)』		
39		稅服全服月數	宋浚吉					
	附變除	除服月數終始死日計(月 동일 강석기추정)*	李惟泰				變除	除服月數終始死日計*
	心喪(○ 卍卍)	爲師	宋時烈					
		朋友服	李惟泰					
	朝夕哭	朝夕哭不拜	宋浚吉					
	奠	祭奠且哭且拜	黃宗海	奠 上食	三年內朔望奠不宜三獻	崔慎		
		望奠與朔望差	宋浚吉		葬前遇先忌泰饌	崔慎		
		俗節上食後別設時食	宋浚吉		三年內几筵不行時祭	崔慎		
		三年內殷奠無參降	宋浚吉		喪中左右奠	崔碩儒		
	上食	禮無夏日三上食	宋浚吉		父母之喪在殯昆弟死用素	崔碩儒	上食	朝夕殯奠與內外憂之疑**
		上食終三年(月 = 朝夕殯奠與內外憂之疑)**	姜頤期					朝夕饋奠
		兄弟無後服內不宜撤几筵	宋浚吉					
		父母喪中子死則成服前廢朝夕上食	宋浚吉					
	吊(弔)	吊當入哭	黃宗海	吊	吊禮答拜之節	崔碩儒	吊	不知死則不哭**
		主人未變服吊者不變服 見上親厚人哭條	X		期功異居受吊之節	???		內外喪吊哭**
		內外喪吊哭 **	姜頤期		葬時壙所拜賓	???		
		婦人喪吊而不哭	黃宗海		喪人在地所受吊之節	崔碩儒		
		不知死則不哭**	姜頤期		祖遺奠	尹宜舉		
		畏壓溺不可一槩不吊	黃宗海		祖遺問上食	崔碩儒		
		受吊之節及吊變禮	宋時烈					
		朋友分厚練後吊哭	吳允諧					
		既除喪而受吊	李惟泰					
		不相識者來見非爲吊慰則不哭	宋浚吉					
	聞喪	家禮聞喪內行條稅成服二字	申湜					
		聞外喪	X					
		無服爲位	X					
		冠婚祭遇喪	宋時烈					
	奔喪	奔喪者墓遠則不必過家先之墓**	姜頤期				奔喪	聞喪未行
		小功以下奔喪主人已成服則四成服	宋浚吉					奔喪者墓遠則不必過家先之墓**
	下	治葬	祠后土	宋浚吉			治葬	后土改稱**
			后土改稱**	姜頤期				筭數及五穀名**
			祠后土執事東上	黃宗海				下帳
			祠后土焚香	宋浚吉				
			祠先墓祝辭	宋浚吉				
			下帳	宋時烈				
			筭數及五穀名**	姜頤期				
			襲用周尺	宋浚吉				
	作主	大夫無主	李惟泰					
		韜藉 見上家禮圖條	X					
	坐式續制之辨	申湜						
遷柩	已除服者服色	姜頤期				遷柩	同五世祖親祖免之節	
	[無服之親服色]상단 제목 X	姜頤期						
朝祖	朝祖時燃燭	宋浚吉				朝祖	朝祖時無告辭	
	朝祖時開門無告辭	宋浚吉						
	奠設如初	李惟泰						
	神不西面	X						
遷于廳事	導柩右旋	宋浚吉						
	方相	宋浚吉						
祖奠	祖字之義	宋浚吉						
	朝奠兼夕奠	宋浚吉						
	柩衣上支下纏	宋浚吉						
	柩衣之稱	宋浚吉						

『疑禮問解』			『疑禮問解續』			『疑禮問解(姜)』		
遺奠	旁親通用永訣終天	X						
	遺奠拜禮	黃宗海						
發引	階喪在道先父下棺先母	黃宗海	發引	髮用數	崔碩儒			
窆	隧道之僭	黃宗海		死於他所發引歸家	申吳	窆	隧道之僭	
	合葬	宋浚吉		祖奠不可再行	崔碩儒		虛葬之非	
	合葬棺齊頭	黃宗海		啓殯散唾至卒哭酒絞	申吳			
	先後葬 (목차에 누락)	宋浚吉		并有父喪祖母喪引葬先後	宋浚吉			
	前後妻合葬	宋浚吉						
	甕柩兩頭	申湜						
	贈禮	宋浚吉						
	玄纁置柩東旁	宋浚吉						
祠后土	土地祝辭	宋浚吉						
題主	題主時主人以下位次	黃宗海	題主	權厝題主	宋時烈	題主	外祖神主題式**	
	無官者神主稱號	宋浚吉		虛葬題主	宋時烈		妻喪神主屬稱**	
	婦人行第	黃宗海		魂帛終三年	尹柔		妻主夫喪**	
	婦人神主稱號從夫實職 見上銘旌條	X		無子之喪題主	崔碩儒		附位稱號	
	庶孽婦人神主稱號 見上銘旌條	X		[上同]	崔碩儒		題主祝文讀畢懷之**	
	妻喪神主屬稱**	姜碩期		殤喪作主	崔碩儒			
	妻主夫喪**	姜碩期		殤喪埋主	崔碩儒			
	外祖神主題式**	姜碩期						
	卑幼神主陪中亦書諱	黃宗海						
	旁題從寫者之左	X						
	妻若乳兒奉祀	李以恂						
	題主人謝禮	宋浚吉						
	題主奠從俗加設	宋浚吉						
	父母皆亡題主祝自稱	黃宗海						
	攝主祝辭	黃宗海						
	題主祝文讀畢懷之**	姜碩期						
成墳	成墳之制	宋浚吉						
	成墳奠	宋浚吉						
	墳墓遇賊見毀	X						
附虛葬	虛葬之非	申湜						
附權葬	權葬之非	黃宗海						
改葬	改葬靈座	宋浚吉	改葬	改葬虞祭哭墓	宋時烈	改葬	改葬朝夕哭奠上食**	
	改葬朝夕哭奠上食**	姜碩期		母喪未葬改父葬總服	安弘重		改葬後奠墓	
	改葬亦先輕後重	黃宗海		母喪未葬改父葬几筵各設	尹宜舉	反哭다음 수록	改葬服制	
	改葬虞祭	宋時烈		改葬朝廟	尹宜舉		改葬除服之節**	
	改葬爲母亦總	黃宗海		發引下棺時總服	尹宜舉		改葬不聽樂	
	婦爲舅姑改葬總女適人者不服	宋浚吉		下棺先輕後重	尹宜舉			
	承重者改葬總	姜碩期		舊喪一虞	尹宜舉			
	父喪中改葬母告廟	宋浚吉		一虞新喪題主	尹宜舉			
	父葬前改葬母重服行奠	宋浚吉		改葬虞祭當行於墓所	安弘重			
	父喪葬後改葬母服總行事	鄭弘溟		改葬時新喪几筵奠代行	崔愼			
	前母繼母出母嫁母改葬服	X		改葬總服變除	池寧海 德海			
	改葬不與宴樂居外	宋浚吉		禫前改葬諸節	李敬輿			
	改葬除服之節**	姜碩期						
反哭	反哭	宋浚吉				反哭	所生親所後親兩喪魂與不可作一行	
	奉主就位饋之	宋浚吉						
	異居者歸家	宋浚吉						
喪禮	虞	虞祭日早晚	虞	復衣不可埋	崔碩儒	虞	虞祭辭神與時祭不同**	
		父喪遷母合葬先父虞翌日行母虞		婦喪祝辭舅主之	崔碩儒		侑食時扱正筋	
		渴葬者報虞卒哭必俟三月		虞卒哭遇喪之節	崔碩儒			
		尸不必童	申湜	遇卒哭侑食無拜	崔碩儒			

『疑禮問解』			『疑禮問解續』			『疑禮問解(姜)』		
	倚仗	宋浚吉						
	三年內階下位	宋浚吉						
	虞祭無參神	宋浚吉						
	虞祭有飯奠	宋浚吉						
	喪中祝主人不稱官	宋浚吉						
	夫祭妻子不讀祝	姜頤期						
	無執事則自讀祝	姜頤期						
	虞祭母不宜亞獻	宋浚吉						
	進茶	姜頤期						
	告利成[利成之義: 是問]	宋浚吉						
	虞祭辭神與時祭不同**	姜頤期						
卒哭	玄酒	姜頤期				卒哭	卒哭後祭稱孝禫前書疏稱哀	
	陳饌左說	黃宗海						
	虞卒哭告利成之異	宋浚吉						
祔	祔祭宗子告祠堂	宋浚吉	祔祭	父母設位	安弘重			
	祔考並祭祖妣二人	宋浚吉		祔祭與先忌同日	安弘重			
	祔祭祝辭	宋浚吉		祔祭用紙榜	尹宜舉			
	宗子告亡者尊則稱府君	宋浚吉		喪中期大功祔祭審其服	崔碩儒			
	祖喪中孫死祔祖	宋浚吉		祔祭追行	李明漢			
	主妾喪君自祔	X						
	妾母祔祭	X						
	祔祭飯饌左說	黃宗海						
	祔祭後祭稱孝禫前書疏稱哀	宋浚吉						
	祔祭後布網巾	宋浚吉						
小祥	小祥練服	宋時烈				小祥	小祥練服	
	葛絰	宋浚吉					十一月練服與葬服輕重**	
	三重四股之制	宋浚吉					小祥後上食哭**	
	去衰負版辟領	宋時烈					追服人變除**	
	爲母十一月而練者不計問	宋浚吉						
	夫爲妻亦十一月而練	宋浚吉						
	夫爲妻小祥卜日	X						
	將行練祥禫而遇喪	李惟泰						
	過期不葬者練祥變除之節	李惟泰						
	服葬者練後服色	宋浚吉						
	十一月練服與葬服輕重**	姜頤期						
	小祥後上食哭**	姜頤期						
	小祥後未除服者會哭	宋浚吉						
	小祥後晨昏展拜	宋浚吉						
	追服人變除**	姜頤期						
大祥	未大祥間假以出謁者(月兪々姜頤期?)*	李惟泰				大祥	并有喪者前喪大祥服其服而祭**	
	并有喪者前喪大祥服其服而祭**	姜頤期					未大祥間假以出謁者*	
	大祥後網巾	宋浚吉					父在母喪祥後撤几筵**	
	繼嗣之家祥後新主姑安於祠堂東壁吉祭後就正位	宋浚吉					父在母喪祥後服色	
	祔母於父則並告祖先	宋浚吉						
	父在母喪祥後撤几筵**	姜頤期						
	禫前書疏稱號 見上祔祭條	X						
	喪服不焚埋	宋浚吉						
	大祥後計問	宋浚吉						
41	禫	禫祭有無	李惟泰	練祥禫	葛帶用治	崔碩儒	禫	并有喪前喪之禫過時不祭**
	妻喪中父死其子不禫	鄭弘溟		追後問計者練祥亦不計問	李暉			所後喪中不可參本親之禫**
	嫡孫祖喪禫時母亡	鄭弘溟		追後問喪成服變除之節	金之白			禫祭著吉與哀**
	所後喪中不可參本親之禫**	姜頤期		所生喪殯後當行所後喪練祥	宋浚吉			禫祭變服之節**

『疑禮問解』			『疑禮問解續』			『疑禮問解(姜)』		
	父母喪中不可行祖母禫與吉祭	李敬輿		練祥退行之節	宋浚吉		禮後飲酒食肉**	
	并有喪前喪之禫過時不祭**	姜頤期		三年內入後喪禫之節	崔頤儒		上丁有故改擇他日	
	禫祭服色(月=禫祭變服之節)**	姜頤期		母與子以聞訃先後各設祥祭脫喪	尹柔			
	禫祭著吉與哀**	姜頤期		追行祥祭所服	宋浚吉			
	禫後著微吉之冠吉祭後著純吉[冠服]	黃宗海		父喪中遭母喪行祥禫	尹宜舉			
	禫後服色及吉祭後服寢	宋浚吉		國恤卒哭後行練祥	崔頤儒			
	禮後飲酒食肉**	姜頤期		喪中除期喪之服	崔頤儒			
				國喪中私喪禫服	尹宜舉			
				家禮告遷之節誤在大祥前	金之白			
				母喪祥後祔廟	尹宜舉			
				禫祭祝辭	鄭基磅			
				禫前哭位之節	尹宜舉			
				庶子爲母不禫之疑	崔頤儒			
				妻喪練祭代行	李佐郎 弘淵			
				并有喪前喪不禫	尹宜舉			
				爲人後者除本生服	崔頤儒			
				父在母喪心喪之制當待吉祭之期而復常	崔頤儒			
附吉祭	禫祭仲月則行吉祭	宋浚吉	吉祭	孟月吉祭				
	吉祭改題祝祖先稱號	李惟泰						
	告五代祖自稱玄孫	黃宗海						
	父在母喪不行吉祭	宋浚吉						
	父先亡母喪吉祭	宋浚吉						
	父喪中不可行祖母吉祭	X						
	埋主	宋浚吉						
居喪雜儀	外憂內憂之辨	宋浚吉	居喪雜儀	【喪中時祭墨衰】	閔後薦			
	喪中往哭宗族	黃宗海		斬衰中宜領當斬	崔頤儒			
	喪中往哭異姓	宋浚吉		新舊喪合葬三年內墓祭所服之不同	鄭基磅			
	喪中祭祀	宋浚吉		三年內合葬墓前哭拜	崔慎			
	喪中祭先之服	宋浚吉		三年內有喪墓祭	宋浚吉			
				三年內祭土神	崔慎			
				喪中主大功之喪	崔頤儒			
				喪中諸父昆弟喪送祭參祭	尹宜舉			
				期大功葬前赴舉	尹宜舉			
				爲本生父母之喪	崔頤儒			
				本生服中告廟服	○安陰 韋舉			
				本生喪中入簪蔽陽子	李文載			
				親喪服飾	崔頤儒			
				服中入廟黑帶	韓聖臣			
				喪中對客向素之節	崔頤儒			
書疏	本生親喪書疏式	黃宗海						
祭禮 時祭	祭用丁亥	宋時烈	祭禮 時祭	卜日西向	崔慎	祭禮 時祭	時祭卜日後前其一日告廟	
	齊戒	X		月祭享嘗	崔慎		玄酒	
	祭時拘忌	宋浚吉		時祭祝共一板	崔慎		進茶	
	祭四代	宋浚吉		攝主祝辭初獻	鄭基磅		降神兩再拜	
	支子所得自祭者	黃宗海		時祭塩楮	崔頤儒		祭畢告利成	
	茅沙紅絲	宋浚吉		時祭婦人亞終獻	崔頤儒		且茅尺度	
	果實之品	宋浚吉		告利成祝與在位者再拜主人不拜	崔慎		祝板尺度	
	生時所不食不以祭	黃宗海		祭用牲	鄭基磅		夫祭妻子不可讀祝	
	祭不用生魚肉	宋浚吉		合飯蓋及敬藥進茶	鄭基磅		無執事自讀祝	
	祭用燒酒不用桃與鯉	宋浚吉		祭用清醬	鄭基磅			



『疑禮問解』			『疑禮問解續』			『疑禮問解(姜)』		
	亂時廟主奉往或權埋	宋浚吉						
喪禮 初終	祖父母喪父有廢疾代行饋奠	李尙馨						
成服	父喪中祖死代服	姜頤期						
	嫡孫代喪其妻三年	x						
	追後成服者滿月後別奠除服	宋浚吉						
	收養服	宋浚吉						
朝夕哭奠上食	離几筵朔望朝夕望哭	李尙馨						
	三年內生辰奠	宋浚吉						
	三年內朔望節先几筵後家廟	宋浚吉						
	上食無代神祭	宋浚吉						
	上食時燃燭	x						
	避寓中上食	李尙馨						
奔喪	不得奔喪所在成服	李尙馨						
治裝	祠土地神設虛位	宋浚吉						
	炭隔油灰之辨	宋浚吉						
	葬時素饌待賓	宋浚吉						
題主	子哭題主及祝	李尙馨						
	夫喪使弟姪主祝	李尙馨						
	弟婦題主	宋浚吉						
	庶孽及私母題主	李尙馨						
改葬	考妣改葬合窆玄纁襲扇柳	宋浚吉						
權葬	遭亂權葬追後立主行虞	宋浚吉						
反哭	反魂時不辭墓	宋浚吉						
虞祭	虞祭沐浴耐祭櫛髮剪爪	宋浚吉						
	期喪虞祭前不櫛	宋浚吉						
	虞至祥禫時忌朔參皆出主	宋浚吉						
	虞祭時祭酌獻之節	宋浚吉						
	虞卒練祥禫神與耐祭時忌祭不同	宋浚吉						
卒哭	玄酒卒耐至時忌祭皆用	李尙馨						
小祥	小祥正服變不變	宋浚吉						
	斬衰練服不緝邊	宋浚吉						
	練祥日受弔	宋浚吉						
大祥	祥禫易服之節(問2)	宋浚吉						
	耐廟時几筵告辭	宋浚吉						
吉祭	吉祭前不可食肉飲酒	宋浚吉						
祭禮 時祭	時祭主人前導	宋浚吉						
	祭時無執事主人自讀祝	宋浚吉						
忌祭	忌祭齋戒	李尙馨						
	忌祭時服色	宋浚吉						
	父母忌日枉遠望哭	李尙馨						
	父母喪中子女祭外祖服中母祭	宋浚吉						
	期功服中忌墓祭(問2)	宋浚吉						
墓祭	墓祭前期行祀	宋浚吉						
	墓祭次日行祀	宋浚吉						
	墓祭時服色	宋浚吉						
	父母上下墳立石行祭之節	宋浚吉						
	考妣兩墓不遠祭祀拜禮兼行	宋浚吉						
	高曾祖墓無祭田諸孫輪祭	宋浚吉						
附喪祭禮答問辨疑								

